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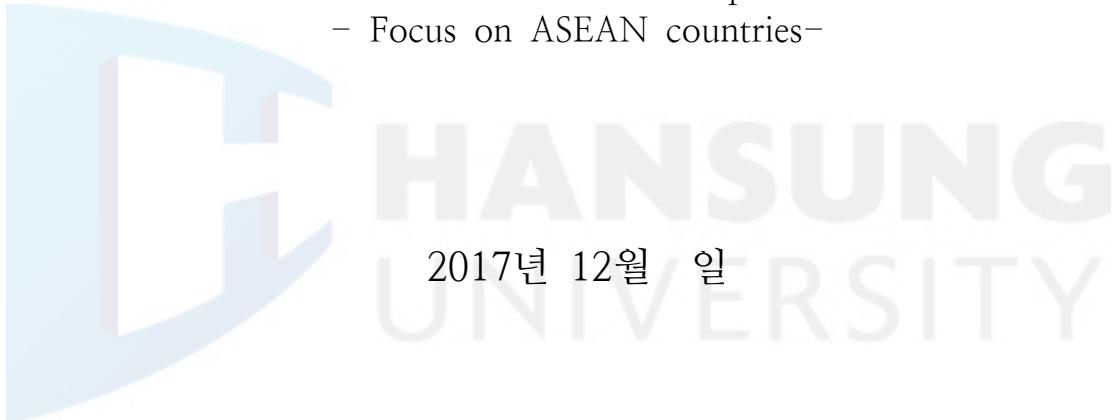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승욱

##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overseas startup  
business for small enterprise

- Focus on ASEAN countries-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동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승욱

##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overseas startup  
business for small enterprise  
- Focus on ASEAN countries-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동현

이동현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동현

본 연구는 점점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의 창업에 관하여 국내창업이 아닌 해외창업을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상대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한류의 영향이 있는 아세안 국가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창업자의 역량과 현지 준비수준이 해외창업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질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창업자의 역량으로는 기업가정신, 창업자금, 업종 및 아이템, 준비기간으로 도출하였으며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나뉘어 가설을 검증하였다.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경제상황, 현지 창업제도, 현지 경험, 현지어, 현지 사업파트로 도출하여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로 현지창업컨설팅의 현지준비수준의 재무적 효과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로 해외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자의 역량(기업가 정신, 창업자금, 업종 및 아이템, 준비기간)은 재무적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

을 미치나 비재무적 성과에는 창업자금외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준비 수준(경제상황, 창업제도, 경험, 현지어, 사업파트너)에서는 재무적 성과에서는 현지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값으로 채택 되었으며 비 재무적 성과에서는 경제상황과 창업제도는 유의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 창업컨설팅의 효과는 창업제도와 경험, 사업파트너는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해외창업, 소자본 창업, 소상공인 창업, 동남아 창업, 창업 성공요인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구성 .....	2
제 2 장 이론적 고찰 .....	3
제 1 절 소상공인 현황 .....	3
제 2 절 창업자의 역량 .....	6
1) 기업가 정신 .....	8
2) 창업 자금 .....	11
3) 업종 및 아이템 .....	14
4) 준비기간 .....	16
제 3 절 해외창업 준비현황 .....	18
1) 현지 경제상황 .....	19
2) 현지 창업제도 .....	25
3) 현지 경험 .....	38
4) 현지어 .....	43
5) 현지 사업파트너 .....	43
6) 현지 창업컨설팅 .....	44
제 3 장 연구설계 .....	45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45
1) 연구 모형 .....	45
2) 연구 가설의 설정 .....	46
제 2 절 자료조사 및 분석 방법 .....	50
1) 연구 범위 .....	50
2) 설문지의 구성 .....	50
3) 자료 분석 방법 .....	51

제 4 장 연구결과 .....	52
제 1 절 연구 범위 .....	52
제 2 절 일반적 특성 .....	52
제 3 절 타당성과 신뢰성 .....	54
1) 타당성 .....	54
2) 신뢰성 .....	63
제 4 절 통계분석 .....	66
1) 창업자의 역량 - 재무적 성과 .....	66
2) 창업자의 역량 - 비재무적 성과 .....	72
3) 현지 준비수준 - 재무적 성과 .....	78
4)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	85
5) 현지 준비수준 - 재무적 성과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 .....	93
6) 통계분석 결과 .....	98
제 5 장 결 론 .....	99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99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02
참 고 문 헌 .....	103
부 록(설문지) .....	104
ABSTRACT .....	109

##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소상공인 현황 .....	3
[표 2-2] 3년간 생존율과 신규사업체 수 .....	4
[표 2-3] 1㎢당 소상공인밀집도 .....	4
[표 2-4] 주요국의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 비교 .....	5
[표 2-5] 최근 10년간의 진입률 및 폐업률 추이(%) .....	6
[표 2-6]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 .....	9
[표 2-7] 창업자금의 종류 .....	13
[표 2-8] 창업자금조달원천 .....	14
[표 2-9] 업종별 창업 준비기간 .....	17
[표 2-10] 월 평균 매출액 별 창업 준비기간 .....	17
[표 2-11]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	20
[표 2-12] 2017년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	21
[표 2-13]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전망 .....	23
[표 2-14]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	24
[표 2-15] 베트남 내 투자허가 신청 절차 .....	26
[표 2-16] 베트남 내 법인설립 절차 .....	27
[표 2-17]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절차 .....	29
[표 2-18] 태국 유한회사/주식회사 설립절차 .....	32
[표 3-1] 설문지의 구성 .....	51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 빈도분석 .....	52
[표 4-2] 측정변수들 간의 공변량 .....	55
[표 4-3] KMO와 Bartlett의 검정 .....	56
[표 4-4] 설명된 총분산 .....	57
[표 4-5] 회전된 성분행렬 .....	58
[표 4-6] 설명된 총분산(2차) .....	60
[표 4-7] 회전된 성분행렬(2차) .....	61
[표 4-8] 분석 활용 문항 .....	62
[표 4-9] 신뢰성 분석 결과-항목총계통계량 .....	64

[표 4-10] 요인분석 결과 .....	65
[표 4-11] 창업자의 역량-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66
[표 4-12] 창업자의 역량-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66
[표 4-13] 창업자의 역량-재무적 성과 계수(3) .....	66
[표 4-14] 기업가 정신-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67
[표 4-15] 기업가 정신-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67
[표 4-16] 기업가 정신-재무적 성과 계수(3) .....	68
[표 4-17] 창업자금-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68
[표 4-18] 창업자금-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69
[표 4-19] 창업자금-재무적 성과 계수(3) .....	69
[표 4-20] 업종 및 아이템-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69
[표 4-21] 업종 및 아이템-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70
[표 4-22] 업종 및 아이템-재무적 성과 계수(3) .....	70
[표 4-23] 준비기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71
[표 4-24] 준비기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71
[표 4-25] 준비기간-재무적 성과 계수(3) .....	71
[표 4-26] 창업자의 역량-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72
[표 4-27] 창업자의 역량-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72
[표 4-28] 창업자의 역량-비재무적 성과 계수(3) .....	73
[표 4-29] 기업가 정신-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73
[표 4-30] 기업가 정신-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74
[표 4-31] 기업가 정신-비재무적 성과 계수(3) .....	74
[표 4-32] 창업자금-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74
[표 4-33] 창업자금-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75
[표 4-34] 창업자금-비재무적 성과 계수 .....	75
[표 4-35] 업종 및 아이템-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76
[표 4-36] 업종 및 아이템-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	76
[표 4-37] 업종 및 아이템-비재무적 성과 계수 .....	76
[표 4-38] 창업자금-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	77

[표 4-39] 준비기간–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77
[표 4-40] 준비기간–비재무적 성과 계수	78
[표 4-41] 현지 준비수준–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78
[표 4-42] 현지 준비수준–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79
[표 4-43] 현지 준비수준–비재무적 성과 계수	79
[표 4-44] 현지 경제상황–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79
[표 4-45] 현지 경제상황–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0
[표 4-46] 현지 경제상황–재무적 성과 계수	80
[표 4-47] 현지 창업제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1
[표 4-48] 현지 창업제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1
[표 4-49] 현지 창업제도–재무적 성과 계수	81
[표 4-50] 현지 경험–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2
[표 4-51] 현지 경험–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2
[표 4-52] 현지 경험–재무적 성과 계수	83
[표 4-53] 현지어–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3
[표 4-54] 현지어–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4
[표 4-55] 현지어–재무적 성과 계수	84
[표 4-56] 현지 사업파트너–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4
[표 4-57] 현지 사업파트너–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5
[표 4-58] 현지 사업파트너–재무적 성과 계수	85
[표 4-59] 현지 준비수준–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6
[표 4-60] 현지 준비수준–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6
[표 4-61] 현지 준비수준–비재무적 성과 계수	86
[표 4-62] 현지 경제상황–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7
[표 4-63] 현지 경제상황–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7
[표 4-64] 현지 경제상황–비재무적 성과 계수	88
[표 4-65] 현지 창업제도–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8
[표 4-66] 현지 창업제도–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89
[표 4-67] 현지 창업제도–비재무적 성과 계수	89

[표 4-68]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89
[표 4-69]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90
[표 4-70]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계수	90
[표 4-71]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91
[표 4-72]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91
[표 4-73]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계수	91
[표 4-74]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92
[표 4-75]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92
[표 4-76]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계수	93
[표 4-77] 모형요약	93
[표 4-78] 계수	94
[표 4-79] 현지 준비수준 조절효과 검정	94
[표 4-80] 모형요약	95
[표 4-81] 계수	96
[표 4-82] 현지 준비수준 조절효과 검정	97
[표 4-83] 통계분석 결과	98
[표 5-1] 해외 창업자의 조언	101

## 그 림 목 차

[그림 2-1] 창업 시나리오 절차 .....	18
[그림 2-2] 미얀마 투자형태별 흐름도 .....	34
[그림 2-3] 미얀마 회사 등록 절차 .....	35
[그림 3-1] 연구모형 .....	45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음식업, 서비스업, 숙박업, 도·소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건설업, 제조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이경술, 2013).

소상공업은 그 규모가 작으나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경술, 2013). 소상공인들은 창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며 매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려서 소상공업의 창업을 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자금력, 기술력으로 많은 어려움에 속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IMF외환위기 사태 및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키코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외부의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SSM의 진출의 영향으로 골목상권마저 붕괴되고 기초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취업의 어려우며 조기은퇴 등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다다를 때 따라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업이 생계가 달린 문제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더 물리설 여지도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창업환경 시장의 포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가간 FTA 확대로 인한 교역환경의 변화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해외 진출의 좋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시장은 한류가 널리 퍼져 있으며, 미주 및 유럽 지역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아세안 시장의 해외진출에 따른 성공적 창업요인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해외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구성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관련문헌 조사와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외 창업자 145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구성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구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 연구의 틀을 설계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방법에서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제시하고 설문지 구성 및 설문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에서는 먼저 타당성 신뢰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약술한다.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며, 생활터전이며 '14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306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6.4%이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05만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3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2-1] 우리나라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수	전체	3,125	3,235	3,354	3,419	3,545
	소상공인	2,749	2,835	2,919	2,962	3,063
	(비중, %)	87.9	87.6	87.0	86.6	86.4
종사자수	전체	14,135	14,534	14,891	15,345	15,962
	소상공인	5,334	5,549	5,677	5,778	6,046
	(비중, %)	37.7	38.2	38.1	37.7	37.9

(통계청, 2015)

그러나 '08년 이후 실업자 증가함에도 자영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민의 일자리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생존율 역시 창업 후에 3년간 생존율은 약 3년 주기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 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한 후의 3년까지 창업 생존율은 연평균 53.5%로 급감하고 있다. 생존율이 상승하면서 다시 신규업체 진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는 전체 사업체밀도 증가를 초래하고 다시 생존율이 떨어지는 생태구조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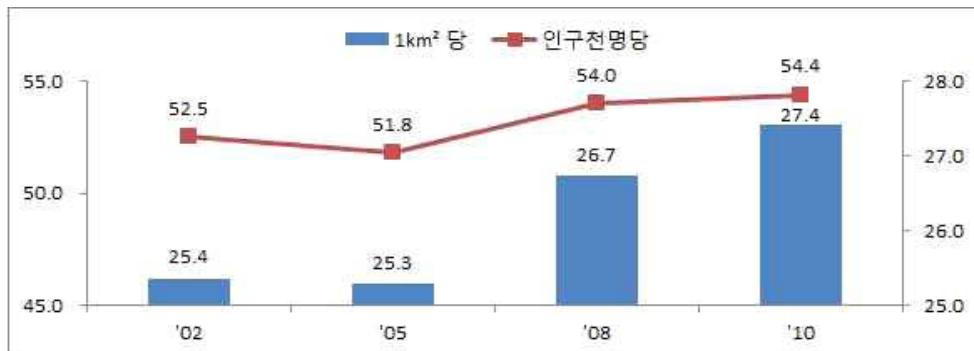
[표2-2] 3년간 생존율과 신규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소상공인의 밀집도는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상공인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밀집도는 1km<sup>2</sup>당 27.4개임. 지역별 밀집편차 또한 심하여 1km<sup>2</sup>당 소상공인 밀집도 : ('2002) 25.4 → ('2005) 25.3 → ('2008) 26.7 → ('2010) 27.4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2-3] 1km<sup>2</sup>당 소상공인밀집도



(자료 : 통계청, 국토해양통계연보, 경제총조사)

1km<sup>2</sup>당 업종별 밀집도('2010년)를 보면 도소매업은 7.8개, 음식업 5.8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7개이다. 1km<sup>2</sup>당 세부업종별 밀집도를 보면 한식음식점 2.5개, PC방 0.2개, 미용업 0.7개, 세탁업 0.4개이며 주요 생활형 업종 역시 경쟁강도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표2-4] 주요국의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 비교

(단위 : 명, 배)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비교(한국/일본)
소매업	12.7	8.9	3.2	1.42
음식점업	12.2	5.7	1.8	2.14
이미용업	2.2	2.3	0.3	0.95
수리업	1.9	0.8	0.8	2.37

(한국은행 조사연구 보고서, 2008)

소상공인은 연평균('01 ~ '10) 41만개가 진입하고 (총사업체대비 15.7%), 37만개가 폐업하고(14.4%) 있으며 진입률은 신규사업체수/총사업체수를 말하며 폐업률은 폐업업체수/ 총사업체수를 말한다. 해외의 진입률을 보면 ('2004년, %) 폴란드 20.8%, 헝가리 17.0%, 미국은 10.2%, 일본 3.1%로 나타내고 있다.

진입률은 '02년 이후 하락세이고, '07년 이후는 13%대에서 정체하고 '10년에 15.7%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 보면 PC방(29.5%), 일반음식업(20.2%), 기타미용업(33.3%), 기타음식점(22.9%), 슈퍼마켓(20.2%), 분식점(24.1%), 편의점(27.0%), PC방(31.3%)이다.

폐업률을 보면 '05년 이후 하락세로, 다소동락을 거치며 13%대 진입 했으며 업종별로 보면 빵, 과자류 소매업(33.3%), 음반소매업(25.1%), 의복소매업(20.8%), 제과점업(25.1%), 기타미용업(25.8%), 일반음식점(20.0%)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5] 최근 10년간의 진입률, 폐업률 추이(%)



## 제 2 절 창업자의 역량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Dollinger는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에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이며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자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존재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를 인지하고 포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Holt, 1992).

Ireland, Kuratko(2006)는 참된 의미로의 창업가는 기업자원의 신결합이라 정의했다, 즉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창업가 특유의 정신을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개척자이며 모험가이고 혁신가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창업가는 창업 아이디어의 확보,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등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창업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설립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자원을 동원하고, 기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설립된 기업이 의도한 대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박준엽, 1998). 일반적으로 창업가 또는 기업가(entrepreneur)는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businessman)와는 달리. 이들 기업가는 기업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이

를 실현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신유근, 2006). 창업가의 개념을 비슷하지만 다르게 나타낸 것은 창업가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판단의 기준점, 표준점등이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을 창업자라 볼 수 있다.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주는 기업가의 개인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업가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특성 연구는 바람직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확보함으로써 조직 효과성의 증진이나 기업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리더의 능력이나 역량이 리더의 특성과 같이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가의 역량은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성공적인 업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량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계발할수 있다는 점이다(Northhouse, 2012).

그리고 창업가에 특성에는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론이란 창업가가 사회적 대인적 연결망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영성과적 이익(Benefits)으로 정의되고 있다(Lin etat., 1981; Portes, 1998).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이론을 기업가정신 분야에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벤처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Davidsson and Honig, 2003; O'Donnell et al., 2001). 그리고 초기창업기업일수록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 연결망이 공식적이기보다는 비공식적 연결망을 선택할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창업기업일수록 창업가의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irley, 1985). 창업가는 특히 대인관계가 분명하고, 적합한 장소와 시간에 사회적 자본을 배치하는 전략가적으로 능력이 출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소유한 인적, 재무적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D'Aveni, 1990). 창업가, 혹은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만들고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술배경 창업가는 모든 경영지식을 갖추고 경영관리를 하기 어려우므로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과 팀을 구성하여 창업하는 경우

가 많다(Timmons, 1999). 그러므로 창업이란 혼자라는 단수의 개념보다는 조직이라는 복수의 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황인규, 2017).

역량(Capability)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경영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의미는 역량은 주로 그 조직이론이나 경영전략가들 중심으로 개발된 거시적인 뜻의 개념과 조직 및 산업 심리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미시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먼저 거시적 개념은 조직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보며 기업전략의 관점에서 경쟁력확보의 원천으로서 역량을 바라보고 있고 미시적 개념은 종업원 개인의 관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내는 개인의 특질을 분석 대상으로 본다는 차이는 있지만 거시적 개념 및 미시적 개념 모두 다 역량을 평균적인 성과를 초과하여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나 능력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보인다. 유태용(2007)은 이런 역량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번째, 역량은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나 활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특성이라는 점이다. 그에 따른 정의된 행동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둘째, 역량은 조직 내 개인들 간의 성과차이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수행기준의 의미가 아닌 우수 수행자가 지니고 있는 뚜렷이 구분되는 행동특성이다. 셋째, 역량은 일반적인 조직 내에서 특정한 목표 및 상황과 연관된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적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 능력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일처리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넷째, 개인의 역량은 조직안에서 교육의 훈련과 개발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역량을 ‘개인과 조직의 성공적인 성과 달성을 핵심이 되며,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측정이 가능하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역량의 개발이 가능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를 하였다.

### 1)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기회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며 접근하는 방법이고, 동시에 행동 및 실행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경영학의 중요한 독자적 영역으로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가 정신은 학문적으로나 현실 세계에서 많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나라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오영미, 2013). 기업가정신의 대표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가 있다. 슘페터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가정신 또한 슘페터의 정의와 비슷하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관하여 도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이 전통적 개념의 기업가정신이다. 이후 기업가정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Cole (1959, 1968)로서 슘페터(Schumpeter, 1936)가 정의한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혁신성에 이윤 지향적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는 관리적 측면을 추가 하여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관리, 그리고 외부환경에의 조정이라는 활동영역으로 기업가정신을 확대 해석 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그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는 기업가정신이란 “개인 자신(즉 개별 창업인)이나 조직내부에서 개인들(즉 조직 내부인)이 현재 통제 가능한 자원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Stevenson & Jarillo, 1990). 즉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 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 없는 작업일 수도 있다(Dollinger, 1995). 많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기업가정신을 연구의 특성에 따라 정의 하고 있다. [표2-2]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 한 것이다(윤백중, 2011).

[표2-6]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

연구자	개념정의
(Schumpeter,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 궁극적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

1936)	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활동과 및 이러한 혁신 실행의 성향
(Miller, 1983)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하여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을 하는 행동
(McClell, 1965)	온건한 위험감수성
(Gartner, 1985)	새로운 조직의 창출
(Hisrich&bruch, 1990)	위험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
(Zahra, 1991)	제품과 공정의 혁신, 그리고 시장 개발을 통하여 신사업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Kao, 1995)	사업기회의 인지와 위험부담의 적절한 관리 및 적절한 자원동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
(Dollinger, 1995)	위험과 불확실성의 조건하에서 수익 및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
(Hisrich&Peters, 1995)	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력 자체
(Lumpkin&Dess, 1996)	조직의 신규 진입
(Timmons, 1994)	사실상 무료부터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창조적 능력 및 위험의 감수의지
(Kuratko&Hodgetts, 2001)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원동력으로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이장우, 1997)	현실적인 제약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 하려는 행위나 과정
(민경호, 2001)	기업가의 심리적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자체
(장수덕, 2001)	기업가들이 발휘하는 진보적인 사고체계와 행위양식
(김종년, 2004)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내는 인간적이며 창조적인 활동
(이정호, 2005)	조직이 위험 추구적, 진취적이며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것

(김영수, 2006)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혁신활동을 통해서 시장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고 주도하는 것
(이상석·고인곤, 2006)	자원의 제약 및 위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가의 의지
(황인표, 2007)	경제, 경영, 문화, 사회, 철학, 역사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과정과 기업경영을 결합시킨 기업가의 활동, 능력, 기능, 정신 등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
(배종태·차민석, 2009)	현재 보유한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여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기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는 원래 불어에서 온 단어로 프랑스의 경제학자 칸티옹은 생산수단의 토지와 노동, 자본을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또한 기업가라는 용어는 17~18세기 유럽에서 위험한 해외무역에서 종사하는 모험적 상인에 대하여 사용하였으며, 19세기 후반의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을 실용화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enterpriser 또는 entrepreneur라는 용어가 사용 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업가정신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OECD에서 제안된 기업가정신의 정의도 이러한 개념에 근접하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OECD 보고서에서 '기업가는 경제에서 변화와 성장의 주체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생성·확산·활용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장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양현봉외,2008).

## 2) 창업 자금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본금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이란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자원과 자본을 이용하여

동원할 수 있는 기술, 토지, 기계, 자원, 재료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자본은 창업자의 출자일 수도 있고 창업팀에 포함된 여러명의 사람이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은 창업이나 경영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서도 조달될수 있다. 창업을 하려면 자본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요인은 창업자금의 확보라고 여러 연구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다. 유망해 보이는 사업 아이템도 지속적 운영 자금이 없어서 사장 되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창업자금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 자금의 수요가 크게 달라진다. 창업을 한 후 경영을 하면서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창업 자금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업추진의 출발점이 창업자금의 확보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일정 부문 자리를 잡고 빠르게 성장할 때에는 시설투자등의 확대를 위해 더욱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 진다. 이 때문에 자금은 기존 사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 부족에 항상 시달리게 된다. 기술력도 높고 매출도 오르지만 몇 개월 버틸만한 자금이 없어 흑자 도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빈번히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자금은 사람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기업은 자금 흐름이 기업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창업자금은 창업성공의 기본적인 조건과는 다른 뜻로 창업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다. 창업자가 창업에 실패하는 요인으로는 창업자의 경영관리미숙, 준비부족, 아이템실패, 시장 확보의 실패, 상권과 입지선정 실패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실패원인은 창업 자금의 부족에 있다. 소자본 창업가들은 여유없는 창업자금 아니면 오히려 적정한 규모보다 모자라는 창업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따라서 성공적 창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성공창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창업에서 충분한 초기자본은 사업을 실행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생존하는데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며 창업 성공의 가능성은 보다 높

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과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 자금이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성공적 창업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모든 사업체의 행위가 자본과 자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박정기, 소상공인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p.8)

조병주는 창업을 함으로써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언제 필요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금 문제와 창업자의 의사결정 선택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있다면 창업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조병주, 1998). 박재구(박재구, 소상공인지원제도상의 신용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1)의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창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51.3%가 자금 문제라고 주장했다(박재구, 2001).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사업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경영에 필요한 비품구입과 설비구입 및 시설임차등에 필요한 자금 등이 포함된다. 운전자금은 사업을 시작한 뒤 물건을 팔고 난 후 회사에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인건비를 비롯해 경비, 재료비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2-7] 창업자금의 종류

종류	내용
시설자금	건물, 토지, 기계등의 설비구입 및 임차자금등
운전자금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경비등

(임진경, 2012)

창업자는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다. 이때 창업자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소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창업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금 지원에 관하여 느끼는 위험의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 주

는 것이 좋다.

[표2-8] 창업자금조달원천

창업자자금	창업자 개인적 저축, 친지투자, 창업자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등
외부의 지분투자	개인 투자자, 벤처자본, 일반주식시장 등
융자자본	현금흐름 담보대출, 자산담보대출 등
내부조달자금	공급업체와 신용외상매출금, 운전자본 감축, 자산매각 등

(임진경, 2012)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창업자는 아래과 같은 기본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로 가치의 창조다. 회사는 주주와 종업원 및 고객 등 이해 당사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현금흐름을 흑자로 달성 하며 사업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실제 위험수준에 있어 어떻게 구성하며 사업결과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에게는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각각의 단계별로 자본을 유치해 위험부담을 시각적으로 분산한다.

### 3) 업종 및 아이템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이 사업 업종 및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여러 경우의 경로를 통해 창업하려는 동기가 부여되며, 신규 창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업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 역시 매우 중요한 단계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아이템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계획적인 창업이 우연히 발생한 창업보다는 실패할 가능성도 적으며 계획적인 창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어 창업에 대하여 결과를 빠르게 얻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Vesper와

Drucker는 우연한 창업이 창업의 실패 가능성과 기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하였다. Vesper는 전직으로부터 획득한 경우가 사업아이템의 원천으로 가장 많고, 취미 또는 사회적 관계로 서로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원천의 순서라고 하였다(Vesper,1996). 또한, Drucker는 혁신의 기회를 일곱 개의 기본적인 원천으로 분류하고, 사업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 원천들을 탐지해 나감으로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관리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Drucker,1985).

Teach의 연구에서도 우연히 발견한 사업아이템에 근거하여 창업한 사업이 조직적으로 걸러내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창업한 사업보다 손익 분기점에 더 빨리 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Teach,1989). 그러나 Koller의 경우는 창업자들은 전직의 경험이나 훈련된 고도의 기술로부터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찾는 탐색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Koller,1988). 조병주는 연구에서 창업자가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여도 창업은 언제든 일어나고 있으며, 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조병주,1998).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는 창업하기 전에 창업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창업의지를 사전에 가졌던 창업자들 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아이템의 기회를 우연한 상황에서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아이템 획득기회는 전직이나 교육과 취미 등의 여러 환경을 통하여 얻어지고 있는데, 그 중 창업전직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의 지름길을 우연한 기회의 창업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창업의 기회들을 유심히 지켜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연구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창업아이템과 접촉하는 경우 즉,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의 경우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의지에 의해 기회를 통해서 창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적인 창업과 우연적 창업만으로 나뉘어 놓고 아이디어의 원천을 계획적이거나 우연적인지 만으로 판단한 것은 기존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 한계점으로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업종 및 아이템 선정에 있어, 어떠한 사업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떻게 사업에 성공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계획적인 창업의 경우, 업종 및 아이템은 나에게서 찾아야 하고, 우연적 창업이라도 아이템의 선정은 나에게 적합하고 맞아야 하고, 둘째 시장과 고객의 분석을 통해서 맞는 아이템을 찾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에 업종 및 아이템 및 업종 선정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아이템을 찾아가야 하며, 시장 및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이 원하고 찾는 시장을 고민하고, 고객이 실제 불편해 하는 것, 일반적인 시장의 기회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눈길을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서, 생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할지라도 사업성에 맞지 않음으로 의미가 없다.

#### 4) 준비기간

소상공인의 창업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창업 준비기간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많지 않다. 그러나 창업 준비기간의 비중은 실제로 창업을 해서 경영중인 소상공인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대체로 소상공인들은 창업 준비를 조금 더 잘 했었더라면, 현실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거나 극복하기가 조금은 쉬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을 위한 준비부터 시작한 기간까지 창업의 준비 기간으로 23.2%로 ‘3~6개월 미만’이 가장 많고, ‘1~3개월 미만’도 23.0%로 매우 많이 나타났다(소상공인 진흥원,2010). 특히 ‘1개월 미만’이 14.2%나 되며, ‘1~6개월 미만’의 준비기간의 응답도 6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창업 준비기간을 살펴 보면, 숙박과 외식업의 경우 ‘1~3개월 미만’이 29.1%, 오락/문화/운

동의 경우 28.9%가 ‘3~6개월 미만으로서 높게 나타났다. 운수/통신업의 경우는 ‘2년 이상’이라는 답변이 53.4%로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9] 업종별 창업 준비기간

(단위: %)

구 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3 개월 미만	3~6 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미만	2년 이상
전 체	(10,069)	14.2	23.0	23.2	13.5	8.6	17.4
소매업	(1,680)	19.5	26.1	24.2	12.7	6.2	11.3
제조업	(1,123)	13.4	22.8	22.7	14.0	9.8	17.3
건설업	(720)	10.6	21.8	22.8	15.1	9.0	20.7
숙박/외식업	(1,485)	16.0	29.1	27.4	12.8	6.9	7.9
운수/통신업	(786)	10.1	10.9	11.1	8.9	5.6	53.4
부동산/임대업	(860)	13.6	19.1	20.8	14.0	15.1	17.4
교육/서비스	(815)	10.9	21.7	25.2	14.7	10.6	16.9
수리/개인 서비스업	(1,102)	16.3	24.3	21.9	12.1	8.6	16.8
오락/문화/운동	(789)	12.9	26.7	28.9	14.7	6.6	10.1
정보/기술/사업 서 비 스 업	(709)	10.2	18.2	23.3	18.2	11.6	18.6

(소상공인진흥원, 2010)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표2-4]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1~3,000만원 은 ‘3~6개월 미만’은 27.1%, 400만원 이하는 ‘1~3개월 미만’이 24.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01~4,000만 원은 ‘2년 이상’이 30.2%로 아주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10] 월 평균 매출액 별 창업 준비기간

(단위: %)

구 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3 개월 미만	3~6 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전 체	(10,069)	14.2	23.0	23.2	13.5	8.6	17.4
400만원 이하	(5,867)	15.8	24.2	21.9	11.6	8.0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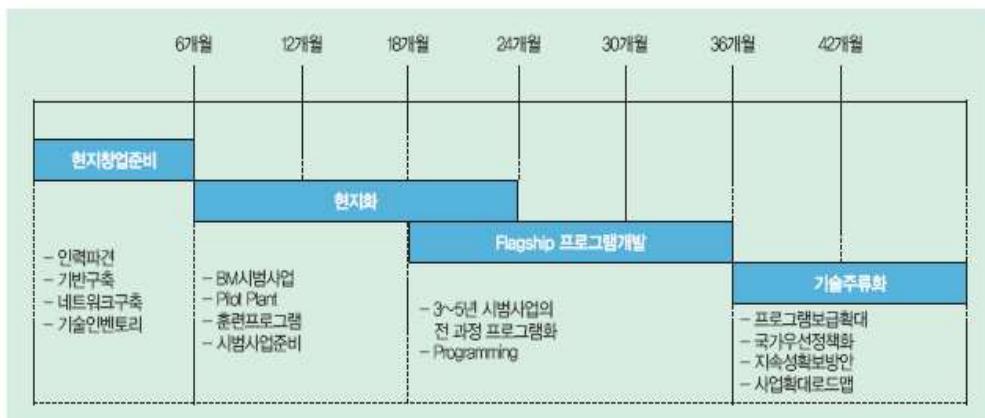
401~1,000만원	(2,560)	12.3	23.2	25.9	15.6	8.7	14.3
1,001~2,000만원	(786)	11.3	22.9	22.6	17.3	9.4	16.4
2,001~3,000만원	(332)	10.5	17.5	27.1	15.1	10.2	19.6
3,001~4,000만원	(126)	12.7	10.3	19.0	17.5	10.3	30.2
4,001~5,000만원	(123)	12.2	19.5	24.4	16.3	13.0	14.6
5,000만원 이상	(275)	11.3	11.6	25.8	16.7	14.2	20.4

(소상공인진흥원, 2010)

### 제 3 절 해외창업 준비현황

해외 창업은 국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사업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해외 리소스의 제약등으로 인해 현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경험 및 능력을 축적하는게 필요하다. 해외에서 창업을 위해서는 먼저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충실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부적으로 창업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현실적인 창업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며 창업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2-1] 창업 시나리오 절차



## 1) 현지 경제상황

### 가) 베트남

2016년 베트남의 경제는 당초 목표치보다는 낮으나 6%대의 성장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유가격 하락과 상반기 자연재해 영향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가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견조한 외국인의 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소비시장의 성장이 베트남의 전체 경제에 구원 투수 역할을 하였다. 2017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였지만 베트남을 둘러싸고 있는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원래 전망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또는 장기표류로 인하여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입감소와 대미 수출 위축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베트남은 17년 한해 동안에 대외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내부 살림 돌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포모사 사태’, ‘정부 부채’ 문제로 정부의 실추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내의 산업구조 개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베트남 경제 환경 주요 이슈로 환경 규제, M&A, 농업혁신, 노동생산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우리 기업들은 각각의 이슈로부터 파생될 새로운 사업 기회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내실화’ 움직임과 함께 내년 베트남 소비시장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내년 베트남 가구 시장은 올해 대비 11.5% 증가한 2,701조 VND(1,1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베트남 소비시장에서는 안전먹거리 수요 확대, 유통시장에서의 옴니채널 부상, My Car시대의 개막, 1인 가구 with Pet(반려동물) 증가가 예견된다.

## 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6년 4분기부터 반등 추세를 보임. 2010년부터 추세를 보면 2010년의 4분기에 6.8% 정점을 찍고 난 후 2015년에 4.7%의 바닥을 찍고 나서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출 확대와 환율의 안정세와 원자재 가격의 반등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2016년, 17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완만한 경제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2-11]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2015년 성장률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 (2017년 예산안)	4.80%	5.10%	5.20%
World Bank	4.80%	5.10%	5.30%
ADB	4.80%	5.00%	5.10%
IMF	4.80%	5.00%	5.10%

(기관별 발표자료, 2016)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는 인도네시아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목되며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은 16년 1월 4.14%에서 10월 3.31%까지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 활용될 여지를 두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도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되며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달러대비 환율을 보면 2016년 1월 1만3,967루피아(Ryfiyaa)에서 10월 1만3,075루피아(Ryfiyaa)로 달러대비 평가절상돼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평가절하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파푸아, 술라웨시, 누사틍가 등 외곽 지역은 GDP성장률이 감소하였으며, 자원이 풍부한 수마트라, 칼리만탄 지역과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 지역은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서부지역으로 편중된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 다) 태국

2017년 태국 경제는 16년 경제성장률(3.2%)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수출 회복,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확대, 가계소비 증대, 1900억 뱗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광수입의 증대에 따라 3~4% 수준의 경제 성장 전망이 예상된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태국 내 투자자금 이탈을 야기해 밤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2017년 대미환율은 35.5~36.5밧 수준으로 예상되며 16년 평균 35.3밧 대비하여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나 태국 4대 시중은행 연구소(SCB EIC)는 태국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해외자본 유출에 대한 민감도가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2-12] 2017년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NESDB	NESDB	K-Resear ch	SCB EIC	Krungsri Research
국내총생산(GDP)	3.2	3.0~4.0	3.3	3.9	3.3
민간소비	3.1	2.8	2.2	2.9	3.0
정부소비	1.6	2.6	3.2	1.7	2.0
총 투자	2.8	5.3	4.4	–	3.2
민간투자	0.4	2.5	2.8	1.6	2.5
정부투자	9.9	14.4	8.5	10.1	9.0
수출액	0.0	2.9	0.8	1.5	1.8
수입액	-4.7	5.5	2.0	3.5	6.0
물가상승률(CPI)	0.2	1.2~2.2	1.8	2.3	1.8

(KOTRA 방콕 무역관 취합, 2017)

태국의 현 군부 정부는 2017년 11~12월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을 최대 현안과제로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 전망이며 대형 공공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민간소비 확대, 민간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이 예상된다. 2017년에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위험에 직면 예상되어 이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외환경으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 취약성과 부동산 버블, EU 정치 불안정성등이며 2016.12. 4 이탈리아 개헌 투표결과에 따른 EU 탈퇴 가능성과 2017년 3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위한 EU조약 50조 발동여부, 2017. 4.23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2017. 8~10월 독일 총선 결과 등이 있다. 대내환경으로는 푸미폰 국왕 서거(2016.10.13)와 2017년 말 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 불안정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 가계부채 과다, 가뭄과 홍수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 부문 불안정성 등이 있다. 또한 태국의 가계부채는 11조 빵(350조원, GDP의 81.3%) 규모이다.

#### 라) 미얀마

미얀마는 25년 만의 민주주의 총선(2015.11월)에서 민주화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이끄는 NLD(민주주의민족동맹)가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집권당이 됬다. 미얀마 국민이 총선을 통해 직접 뽑은 의원들이 선출한 빤 쩐(Htin Kyaw)대통령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첫 문민정부가 출범(2016.3월)하였으며 긴 군부 정치가 끝나고 국민 총선 참여율 80% 이상으로 만들어진 미얀마의 첫 문민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꽤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 자문역, 외교부 장관으로서 미얀마 신정부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처별 주요 보직이 운동권 출신인 NLD 인사로 교체되면서 내부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16년 7월, 미얀마 신정부는 구정부가 과거 승인한 양곤내 건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여 대내외 투자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 개정, 경제 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높은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열악한 인프라 환경,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 등으로 투자 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2-13]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전망

기관명	2015	2016	2017
GDP 성장률 (%)	7.3	6.3	7.5
1인당 GDP (US\$)	1,148	1,269	1,375
소비자물가지수(CPI)** (%)	10.0	7.0	6.9
수출실적 (백만 US\$)	11,137	11,066	12,208
수입실적 (백만 US\$)	-16,578	-17,784	-19,721
무역수지 (백만 US\$)	-5,441	-6,718	-7,513
외국인투자금액 (GDP 대비 %)	7.1	5.9	6.5
실업률 (%)	4	4	4

(IMF. 단 실업률은 미얀마 중앙 통계청, 2016)

IMF에 따르면, 2017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은 2016년 회계연도보다 1.2% 높은 7.5%로 예상하고 올해 미얀마 경제 성장의 핵심은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 인프라의 개선 등 사회 안정성 확보라고 했으며 2015년 정권 교체 이후, 16년은 기존 정부의 정책 검토 및 수정의 과정이 었다면, 17년부터는 대형, 장기 프로젝트의 생성 및 시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예정된 정책적인 변화로는 신투자법 시행령 발효, 회사법 및 노동법 개정등의 투자와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변화되면서 미얀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이라 전망되며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양곤 건설시장의 재호황,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기금 유입과 사회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 마)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동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태국, 북쪽으로는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중에 하나이다. 아직까지는 인구의 70%이상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산림이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분별한 벌목과 밀반출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현

재 세계 최빈국중의 하나로 이는 크메르루즈군의 점령기간 동안 암흑시기와 많은 이들에게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킬링필드’라는 대학살에 기인한 바가 크다. 1980년대 후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캄보디아 경제발전의 시작을 알렸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도 수상인 훈센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1996년부터 캄보디아에 봉제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현지에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부동산 개발붐이 일어나며 건설분야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GDP) 05~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1%의 두 자리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8년에는 6.8% 성장했고 09년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0.1%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봉제업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부터는 평균 7%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2-14]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기관명	2015	2016	2017
실질 GDP 증감(%)	7.0	6.9	6.8
산업별 GDP (%)	농업	0.2	0.1
	공업	11.7	9.7
	서비스	7.4	8.0
물가상승률(%)	2.8	3.0	3.5
수출 증감(%)	9.2	14.9	9.1
수입 증감(%)	7.4	9.6	9.9
정부세입(% GDP 대비)	17.5	17.5	17.5
정부지출(% GDP 대비)	20.5	22.3	22.0
해외직접투자	1,826.1	1,676.9	1,802.7

(World Bank Cambodia Economic Update, 2016)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과 함께 2007년 10.8%, 2008년 7.5%, 2009년 -0.7%, 2010년 4.0%, 2011년 4.9%, 2012년 2.5%, 2013년 4.7%, 2014년 1.0%, 2015년 2.8%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보면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

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2) 현지 창업제도

### 가) 베트남

베트남 내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회사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외국인의 창업에 대한 차별 제도는 없으나 WTO 양허안에 따라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비율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다. World Bank에서 실시한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한 창업환경 평가에서는 베트남이 98위를 기록했으며, 기초 생활여건이나 언어사용 환경 등의 여러조건을 감안했을 때 창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베트남 내에서 창업시 기본적으로 창업 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후 노동허가를 받은 베트남의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의 경우는 거주증이 발급되며, 거주증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 기간 동안 비자가 면제된다. 베트남은 입국 목적에 따라 열가지 종류의 비자를 발급하며 투자자에 대해서는 'B2'비자를 발급하고, 비자발급을 위해서 투자허가 및 비자 신청서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후에 베트남 이민국에 조회, 허가 절차가 이루어진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개인 창업의 경우에도 사업허가 및 법인설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자본금 액수가 적다는 점과 주로 서비스 업종 진출이라는 점에서 사업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베트남 내 1인 외국인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 또는 가내사업에 집중되며 타국과 비슷하게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이 아닌 1인 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행업, 요식업, 무역유통업 등 서비스업이나 가내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서비스 산업분야에서는 외국인이 100% 단독투자하여 법인설립은 법률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베트남 현지인과 합작법인이나 명의대용 등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소자본 창업의 경우

허가 당국이 창업 자본금의 소액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며, 현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사업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창업 시 최소자본금, 업종제한, 지분제한 여부도 있는데 일부 부동산 임대업, 인프라 개발 사업, 금융업등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면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베트남의 현지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요 신규 창업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일부 투자 금지 분야를 제외하면 법률로써 기업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분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 스케줄에 따라 도·소매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 부동산 임대, 운송, 금융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지난 2014년 1월부로 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

[표2-15] 베트남 내 투자허가 신청 절차

준비절차	세부항목
부지선정	각 투자가능지역 현지방문 및 투자환경조사 - 정부, 투자기관 및 공단조성업체 방문
부지 가계약 체결	해당되는 투자예정지의 개발주체, 지방성 인민위원회와 가계약 및 MOU체결
투자허가 신청준비	한국: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본국기업에 대한 증빙자료 베트남: 기업정관, 투자허가신청서, 투자프로젝트 계획서 등의 현지법인운영에 대한 자료(베, 영)
투자허가서 신청	관할 지방성 공단관리위원회 또는 계획투자국 서류제출
투자허가서 발급	서류 제출 후 이상 없을 경우 15 업무일 이내 발급 (현실적으로 지연 가능성 높음)
투자허가서 취득 후 세부절차	법인인감 등록, 은행계좌 개설, 세무코드 등록, 핵심이사진 선임 및 등록, 현지 신문 법인설립 공고, 수입계획서 등록 등의 추가 수속
부지 정식계약	지방성 인민위원회 또는 공단관리위원회 부지 정식 계약 체결

(코트라, 2015)

[표2-16] 베트남 내 법인설립 절차

준비절차	세부항목
투자허가 신청서	각 성별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에서 수령
기업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
창립사원 및 주주명단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에 한해서 제출
합작 또는 경영협력계약서	본국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개인기업)
재정능력 확약서	완성 설계에 따라 건설 시작 감리대행업체 혹은 직접 감리업무실시
임대계약서 (가계약)	법인설립 예정지역 임대감리 후 결과 및 완공허가서 신청서 지방성 건설국 제출 건설국의 감리 후 완공허가서 발급
자격증명서	대표자 혹은 담당자의 자격요건이 필수 업종의 경우에 관련하여 자격증명서 제출 필요
본국 법인설립 증명	본국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필요
법적 대표자의 여권사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체의 여권사본
위임장	법인의 경우, 대표이외의 담당인사가 각종 서류에 서명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 2015)

베트남에서는 소자본 외국인 투자나 창업에 대한 법적 제약조건은 없지만, 베트남의 현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제약사항은 있다.(예: 까다로운 서류 심사, 행정업무 처리 지연등)

### 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도 창업 열기는 뜨겁다. 2013년 스타트업의 수가 500만에 육박할 정도다. 하지만 800만개의 스타트업은 대부분 소규모의 초기

스타트업이며, 이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편이다.

Doing Business가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및 창업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기업환경에서 120위, 창업환경에서 175위를 차지하였다. 평균 창업 소요기간은 48일이나 되었다. 법인설립을 위한 소요기간은 절차별로 다르나 최장 48일로 실제로는 그 보다는 신속히 진행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최소투자(약 12억원) 규모를 정해놓고 있어 매매, 무역, 여행안내, 요식업, 컨설팅 등 소규모로 투자 진출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공동 출자가 있다. 즉. 인도네시아 사람 또는 다른 한국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출자를 분당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지인과 공동 경영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인니에 진출한 2천여 개의 한국계 기업 중 인도네시아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 경영하는 PMA 형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내국인과 한국인간의 문화적 차이, 사업의 기준 및 기대 수준의 차이로 계획한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도네시아 내국인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차명투자 방법이 있는데 현지 실정법에서는 차명투자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투자에는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가가 인도네시아 내국인 명의로 차명투자 형태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믿을 만한 내국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 투자환경의 개선과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일명 Negative Investment List)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과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중이며, 현재는 2003년 공표된 신노동법을 근간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형태별로 주식회사(PT, Perseroan Terbatas),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UT, Public Works Representative office) 등이 있으며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투자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Penamanan Modal Asing, PMA)와 내국인 회사(Penamanan Modal Dalam Negerie, PMDN),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구분이 되며, 외국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2-17]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절차

구분	세부항목
01	법무부 상호 신청 : 법무부에 상호 가능여부 확인
02	투자조정청의 투자승인서(Izin Prinsip)
03	정관 작성(Akta Notaris)
04	소재지 증명서(Ijin Domisili)
05	세적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번호(VAT number)
06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은행계좌신청 및 자본금 납입 (보통 수권자본금의 25% 정도)
07	법무부 승인(Pengesahan)
08	임시사업자등록증 신청(무역부; TDP)

상기 임시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인도네시아의 현지 사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면 사업본허가와 라이선스 취득을 진행한다. 사업본허가는 Izin Usaha로 투자조정청에 신청을 해야 하고, 라이센스는 수입허가(API-U), 토지 매입/사용 허가, 통관인식번호(NIK), 건축, 환경, 공장 허가 등으로 각각의 회사별로 영업활동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다. 법인설립 절차 및 사업본 허가와 라이선스 취득에 관련된 준비서류가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법인 설립 대상 지역의 특성과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회사는 설립 절차의 진행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의뢰하고 있고 보통 유명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임시사업등록증 발급까지를 의뢰를 할 경우 약 2만 달러 내외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에 관해 의뢰 시 약 1만 달러 내

외의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조세제도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를 전담하는 세무서 (LTO good-governance framework)가 운영되고 있어서 조세관련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은 개별로 신고하여, 전국에 걸쳐서 사업장 또는 지사를 보유한 기업은 등록된 지방세무서에서 납세의 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 지정 세무서에 등록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통합 신고해야 한다.

법인소득세는 인도네시아 현지 범무부의 설립허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난 후 설립한 현지 법인은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인 직접투자회사 사업허가는 30년간 유효하고, 추가 30년간은 사업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나 이 경우에는 15년 내에 최소 1%의 지분양도의 의무가 있다. 법인 소득세는 단일 세율 25%가 적용된다.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한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에서는 5%가 할인이 된 20%가 적용되며,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8억 루피아까지는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게 과세지역 내에서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 있는 사건에 부과되며 연간 매출액 6억루피아 이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2 %를 추가 징수한다. 기본 세율은 10%이나 정부규정에 따라 최저 5%, 최고15%로 할 수 있다. 또한 재화의 수출 원재료, 기초생필품, 화폐, 금괴, 어음, 전략적 재화, 무형재화의 수출, 용역의 수출(수출품 임가공 용역거래 포함) 등의 경우 면세된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인도네시아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될 수 없으며 노사의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가 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나뉘며 현물급여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급여 지급 형태는 월급과 일급 및 주급 등이 있으며 도시나 인근지역 대기업은 대부분 월급제이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노동에 주급을 적용하고 있다. 임금은 크게 분류하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전체 임금의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노동법을 바탕으로 노동에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근로계약과 사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할 시 1~3차 경고장을 순차적 발급하고 난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고용의 해지는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 다) 태국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및 창업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기업 환경에서 18위, 창업환경에서 91위를 차지한다. 태국 투자청(BCI)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혜택의 분야 중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 혜택을 축소하고 4개 분야에만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투자혜택 유지 분야: 인프라, 고도기술, 국내 원재료 기반 서비스 산업, 태국을 생산기지로 하는 산업이다. 태국에서는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나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소는 노동보호법에 의거 취업 규칙, 임금 대장 작성, 종업원 명부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태국의 투자청은 그동안에는 상기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산업중심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다. 태국 투자청에선 방콕인근에서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를 더욱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투자청은 판단하고 있다.

창업절차는 법인, 연락사무소 설립 등의 대다수 형태의 창업에는 상무부 내 사업개발국과 외국인사업위원회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상무부 내 사업개발국과 외국인사업위원회는 외국 투자 인가에 있어 사업의 합리성을 고려해 투자액 (자본금 등) 이 적절한가를 판정 후 승인한다.

외국인의 개인기업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유한/주식회사 별 최소한의 인원을 충족해야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출 수 있고 대부분의 절차 상무부내 사업 개발국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임대차 계약 - 구비서류 준비 - 허가서 신청 - 허가서 발급 - 구좌개설 - 임대차 계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표2-18] 태국 유한회사/주식회사 설립절차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1	설립요건	유한:최소23명 주식:최소15명 유한:최소자본금 없음		DBD	
2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		
3	구비서류	회사명	DBD 신청양식	대행업체 (법무법인)	10
		회사정관 등록	상무부 지방등록 사무소		
		주식발행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에서 회사운영권 확보		
		이사회에서 회사운영권 이양			
		회사등록	창립총회 후 3개월 이내 등록	DBD	
		법인세 ID 카드 신청 VAT 등록			
4	허가서 신청	해당 구비서류 일체		DBD	1
5	허가서 발급				
6	구좌개설			은행	
7	임대차 계약		계약체결		

태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4년 내 500만 바트 (1 억 6천만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사업 위업회의 승인과 사업개발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태국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재무부 3개국에서 관장하며. 관세국은 수입 및 수출세를 징수하며 내국세국에서는 범인세 및 부가가치세, 인지세, 특수사업세 물품세국에서는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물품세를 징수하고 있다.

#### 라) 미얀마

Doing Business가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및 창업환경에 대해 조사 결과 미얀마는 기업환경에서 182위, 창업환경에서 189위를 차지했다. 평균 창업 소요 기간은 72일이다. 미얀마 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승인요건에 대한 심의를 받고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후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랜 기간의 사회주의체제 및 군부집권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책임회피를 위해 결재가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협조기관도 많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창업제도나 지원에 의해 설립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투자법 또는 회사법에 의거 창업 (법인설립) 을 하여야 한다.(제3국에서의 자본금 송금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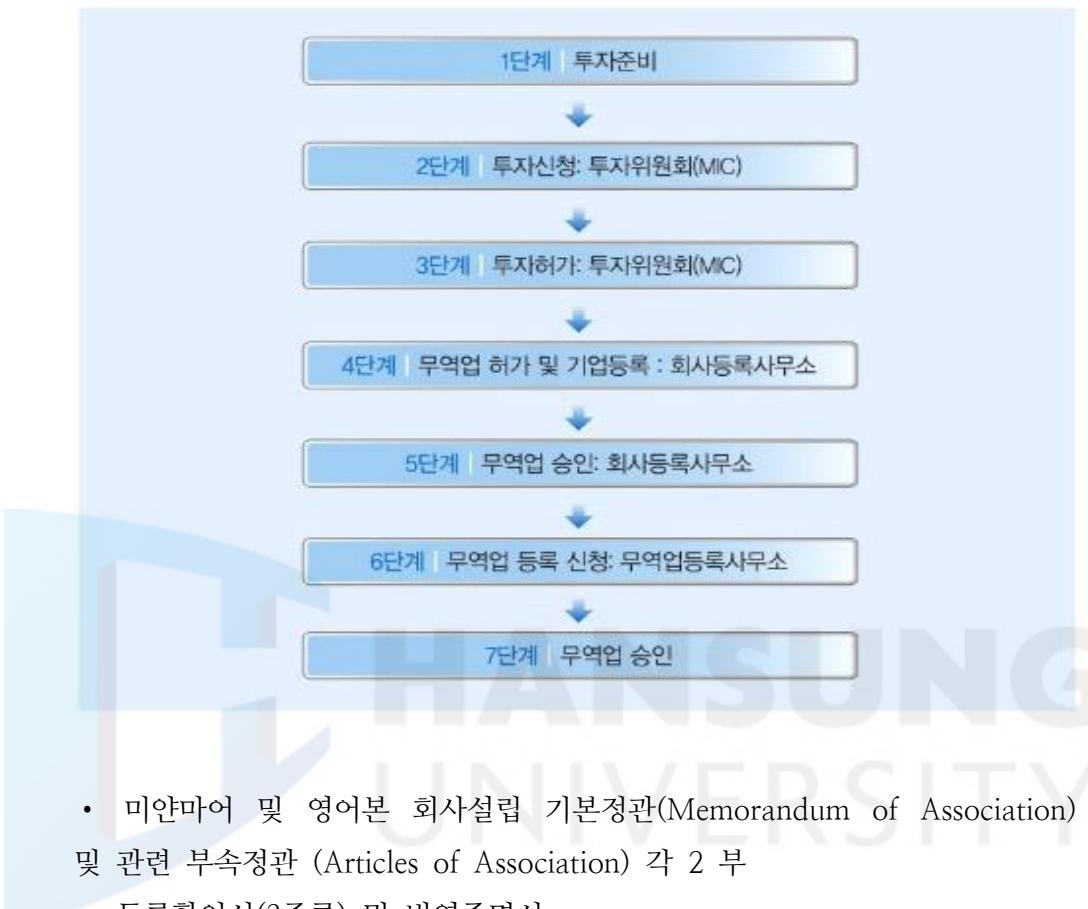
외국인이 현지에서 창업을 할 경우,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MIC 1/2013)에 의거해 외국인의 투자 제한분야, 합작투자 가능 분야, 특정조건 충족 시 투자 가능 분야 등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다.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할 경우에도, 동 법상에는 외국인 투자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등록 접수 시 실무적으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중용하여 등록여부가 결정한다.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기업은 우선 외국인투자법과 미얀마 회사법 중 어떤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얀마에서의 회사 등록 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2-2] 미얀마 투자형태별 흐름도



유한책임회사는 미얀마에서 외국인 창업의 경우, 소규모 자본투자 또는 서비스업에서의 창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이 경우 회사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얀마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에 의한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보증에 의한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및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가 있으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만을 회사 형태의 투자 조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미얀마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미얀마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경우는 지사(Branch),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 미얀마 회사법은 원칙적으로는 단 1주라도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내국기업이 아니고 외국기업으로 간주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는 투자회사등록국(DICA)에 제출한다.

[그림2-3] 미얀마 회사 등록 절차



- 미얀마어 및 영어본 회사설립 기본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및 관련 부속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각 2 부
- 등록확인서(3종류) 및 번역증명서
- 임원명단
- 투자위원회의 사업허가서(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지사 , 사무소)
- 우편물 공식 접수자 내역

외국기업(외국에 소재)은 투자위원회 등록 전에 외국기업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Permit)를 투자위원회로부터 득해야 한다. 미얀마는 사실상 외국기업에 대해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등록 신청서류는 아래과 같다.

- 미얀마 회사법 시행규칙(Myanmar Companies Regulation , 1957) 상의 Form A
- 회사설립 기본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및 관련 부속정관

### (Articles of Association)

- 소정의 질의서(Questionnaire) 양식
- 영위할 사업형태
- 영업개시 첫해의 예상지출 내역
- 재무상태보고서 (Financial credibility)
- 이사회 결의서

합작투자시 파트너는 개인, 민간기업, 미얀마 정부 기업등 자격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자본 비율은 35%이상이어야 한다.

- 지점 및 연락사무소

미얀마 회사법( Myanmar Company Act)에 따라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결차는 법인 설립 결차와 동일하며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투자 승인 대신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 등록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하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위의 기본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본사의 회사설립 기본정관 및 관련 부속정관 (해당국 영어판 공증 및 해당국에 주재하는 미얀마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최근 2년간 본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글로벌창업에 도전하라, 2013)

### 마) 캄보디아

Doing Business가 전 세계의 189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및 창업 환경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는 기업 환경에서 137위, 창업환경에서 184위를 차지했다. 평균 창업 소요기간은 104일이다.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창업지원 정책이나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별도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나 창업경진대회등도 없다. 외국인에 대한 창업지원 역시 없다. 다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외국인의 투자유치 업무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가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지원한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요청

하는 외국인 투자 허가 관련 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하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관련 정부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게 되며, 해당 각각 부처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를 허가한다. 투자 허가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는 대체로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직간접투자 관련 계약체결
- 법인설립
- 사업부지 확보(임대, 양허, 구매)
- 관련인허가신청
- 시설,자재 및 고용[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Address: Government palace, Sisowath Quay, Wat Phnom, Phnom Penh
- Tel.: (855-23) 981 154
- Fax.: (855-23) 428 426
- Email: cdc.cib@online.com.kh
- Homepage: www.cambodiainvestment.gov.kh

외국인은 토지소유가 금지되며, 캄보디아인과의 합작법인(외국인 최대 취득가능 주식 49%)를 통하여 토지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캄보디아 회사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네 가지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사적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소규모에 폐쇄적인 기업이 선호된다. 사적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는 지분권자의 수가 20~30명으로 제한되며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일반에 공모할 수 없으며 다른 주주나 가족, 회사의 임원 등에 사모 형식으로 발행된다. 캄보디아 회사법 제86조에 의해 각각의 종류주식의 양도에는 하나 이상의 양도제한을 둘 수 있는데, 실제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사용하는 Private Limited Company의 표준정관 및 회사법 제 86조에서 주식양도에 다른 주주 전원 혹은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요하는등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고 있다. 주주 전원동의로 이사의 업무집행권한 제한이 가능한 등 주주의 권한이 막강하다. 공개유한책임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는 기업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사형태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시 법적으로 인접되는 회사 형 태이다. 주주의 수가 2명 이상이 되면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주식공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 법상 Private Limited Company와 차이를 보인다. 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주식의 내용이 다른 우선주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도록 접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거의 대부분을 이사회 의결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캄보디아 주주의 개입여지를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캄보디아 회사법 제119조). 또한 Public Limited Company는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회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캄보디아에 설립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될 상장회사의 기본적인 회사형태일 것이다.

지사개설시 최소자본금기준은 없으며 설립 시 서류비용에는 총 450달러가 소요된다. 투자 시 투자금액은 최소 50만 달러 (5억 1,795만원)이며 신청 비용은 100달러 (10억 3,590만원), 승인비용은 500달러 (100만 달러 이상 투자시에는 1,000달러이다.

### 3) 현지 경험

해외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현지화에 실패이다.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일반화된 계급식 기업문화는 금물이며 특히 현지 근로자에게 한국식의 근로문화는 높은 이직률과 함께 노동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 충분한 현지 경험이 중요하다. 각 국가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므로 수입이나 생활비 문제 등의 가난한 환경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이념, 생각, 정치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운 날씨로 인해 오후 업무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업체 방문 일정은 가능한한 오전 시간으로 하고 오후 방문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와 낮잠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이후가 무난하다. 베트남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대개 10분~30분 늦을 때가 많다. 만일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때는 교통난을 감안하여 약속시간을 피하는 게 좋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손님에게 차나 음식등을 대접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대화시에는 허리에 손을 업거나 팔짱을 낀다던지 지나치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중국의 관시처럼 베트남에서도 사적 관계가 중요하다. 현지의 인맥을 잘 활용하면 거래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 건 이하면 일단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한다. 몇몇 소수만의 발언권이나 의사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라도 대규모의 사절단이 파견되면 자신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인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도 실력자 누구누구와 친한 사이라면서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정부의 문서까지 위조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빈번하니 현지 유력인사를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는 일단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 무리한 요구를 자주 하는 편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풀어줄 필요가 있으며 문서나 이메일보다는 직접 대면하고 대화 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현지에 출장을 하거나 직접 한국으로 초청해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금기사항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긴 하나 이슬람이 전체의 86%를 차지하다고 있어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독실한 신자가 많으므로 이슬람을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이고 이슬람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경우 자신은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알콜 음료나 돼지고기등의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슬람인은 왼손을 화장실에서 배변 후 물로 세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식사나 약수 시 또는 물건을 건넬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다. 또한 머리는 사람의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어 어린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니

주의해야한다. 대부분 이슬람인은 금요일 낮에 반드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슬람이라면 금요일 접심시간대의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인들은 “Terima Dulu Kasih Lagi” (Take and Give)라고 하여 먼저 받고 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 방문 시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주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때로는 거래처의 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현지인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은 종족 의식의 매우 강한 편이므로 비즈니스 상거래시 종족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안인들은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 노우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서 궁정과 부정을 깨달하여 할 경우가 많으면 말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강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국은 법률에서 왕과 왕실에 대한 불경죄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히 인터넷에 왕과 왕실에 대한 불경한 글이나 영상등을 올릴 경우 태국 현지의 사이버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즉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태국인들은 왕과 왕실에 대해서 가슴속에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꺼려하고 왕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의 업적을 칭찬하는 대화는 가능하다. 모든 불상은 오래된 것인 든 새 것인 든 크든지 작든지 신성한 것으로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불상에 올라가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선 안 되며, 불상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하여 공경을 표시하고 있다. 사당이나 불상을 만지면 신성한 물건이 더럽혀진다고 믿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승려들은 여성과 신체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승려가 지나갈 때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양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태국은 사람의 머리는 하늘로 향하고 있어 신성한 부위라 생각하며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불결한 부위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행동이나 머리위로 물건을 건네는 행동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발로 문을 닫거나 이것저것 가리키거나 대단한 결례이다. 발로 사람 또는 물

건을 가리키는 행동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며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것 또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싸움을 거는 행동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태국인 집에 방문하여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태국 사람들은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특히 좋아하지 않으므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실수로라도 상대방의 머리를 건드리게 되었다면 바로 사과해야 한다. 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노골적인 애정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가 바뀜에 따라 정도는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남녀간의 애정 행동은 환영 받지 못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옷을 벗은 사진이나 광고물등은 게재를 하지 못하며 공공장소에서 남녀 간의 애정표현은 금하는 것이 좋다. 태국인들은 또한 체면을 중시하고 다툼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행위, 과장된 손짓 등은 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상대방의 존경심을 잃게 된다. 태국메W에서 분쟁은 미소로 해결하며 십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태국인의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운 성격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적은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명확한 일 처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특히 약속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의이며 교통 혼잡 등으로 약속시간에 늦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미얀마는 불교와 관련된 비판적 말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명함이나 선물을 건넬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왼손을 좌욕 동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인과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한다. 미얀마에서 혀를 말아 형기며 내는 똑딱 소리는 자신이 화가 났음을 나타내는 메시지이며 욕과 비슷한 개념이다. 여성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 결례이며 여성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경우 외국인이라도 현행체포가 가능하다. 미얀마는 민정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아직 과도기적인 상태로 체제유지를 위해 극도의 정보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정치적 이야기는 금물이다. 미얀마인들은 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 화제에 대해 건드리는 것은 유의해야 한

다. 남성이 치마에 슬리퍼를 입는 것은 미얀마의 전통의상이며, 타나카라는 천연화장품을 바르고 다닌다. 대부분의 미얀마인들은 종교나 관습의 영향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많다. 미얀마인은 싫은 것이나 미안한 것에 관해 표현하는것이 서툴기 때문에 빠르고 급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캄보디아 거래선을 만날땐 가급적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답례한다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캄보디아 전통 인사법은 불교식으로 양손을 합장하고 얼굴 쪽으로 당겨서 모은 채 머리를 숙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구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점점 보편화 되었으나 전통적인 합장 인사를 하면 좋아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위인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담배나 인삼차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초대를 받거나 현지 사무실로 방문할 경우 적은양을 준비하여 가는 것도 호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며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사 초대 시 야생동물 요리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식을 조금 해보거나 정중하게 사양해도 괜찮다. 캄보디아인과 첫 대면시 한국과 비슷하게 두손으로 공손히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예의다. 명함을 받을 때에는 바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천천히 읽어보고 지갑에 넣어둠으로서 상대방에게 존중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캄보디아인의 이름은 한국과 같이 성 이 나오고 이름이 뒤에 따른다. 따라서 현지인을 부를 때에는 성보다는 이름을 부르거나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캄보디아의 신세대들은 영어 교육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받으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 구사능력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현지인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는 삼가해야 한다. 통역과 함께 대동할 경우에는 시선을 현지인에게 맞추고 바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캄보디아는 연간 고온의 날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복장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비즈니스 복장은 얇은 반팔 셔츠에 정정바지를 입거나 여자의 경우는 블라우스를 입는 것을 추천한다.

#### 4) 현지어

해외창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지 근로자는 영어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 노무, 제조 및 회계자금 등 조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현지어를 구사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핵심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한다.

#### 5) 현지 사업파트너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과 기술을 현지의 시장정보만 가지고 바로 판매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우선 일부 제품을 완제품이나 조립품 형태로 현지에서 판매한 뒤에 판로를 먼저 확보하고 판매 가능성은 확인하고 진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화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직접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 라이센스나 제품 판매의 독점권 부여 등에 관하여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은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하고, 분쟁에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많은 경우 직접 당사자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파트너와 동반하여 현지에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투자비용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협력에서 오는 다양한 사업상의 위험이 있고 사업의 성공을 통한 과실의 규모 축소도 예상된다. 따라서 협력진출에 대해 SWOT분석을 통해 협력의 장단점, 기회위협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느 수준의 협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수준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사업 파트너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현지의 판매망을 개척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용하다.

초기 창업에 성공하면 체계적인 사업 확대전략을 수립한다. 우선 성공 제품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핵심능력을 확장하고 내부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제조, 구매, 품질, 판매, 전산등 부문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안

을 만들어 현지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서 성장하도록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현지의 이해관계자와 공유가치 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창업초에는 경영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사업주체의 독자적인 해결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외에서의 해외진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충분한 활용을 통해 초기 사업 시 부족한 리소스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코트라 뿐만 아니라 현지 대사관 및 상무관등과의 협의는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현지에서 해결이 안되며 어려운 문제가 발생시는 한국의 진출국 공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한 대사관의 주재관은 현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큰 요인은 현지화에 실패이다.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보편화된 계급식 기업문화는 금물이다. 특히 한국식 근로문화는 높은 이직률과 많은 노동분쟁을 낳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다.

#### 6) 현지 창업 컨설팅

컨설팅이란 사전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 자문에 응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의사가 인체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컨설턴트도 기업체를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예방, 치료 조치를 강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박대희, 2009) 창업컨설팅은 넓은 의미로 경영컨설팅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가 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창업경영상의 문제들에 대해 진단 및 상담을 행함으로써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식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하려는 국가의 특성 및 각종 창업제도에 관하여 현지의 컨설팅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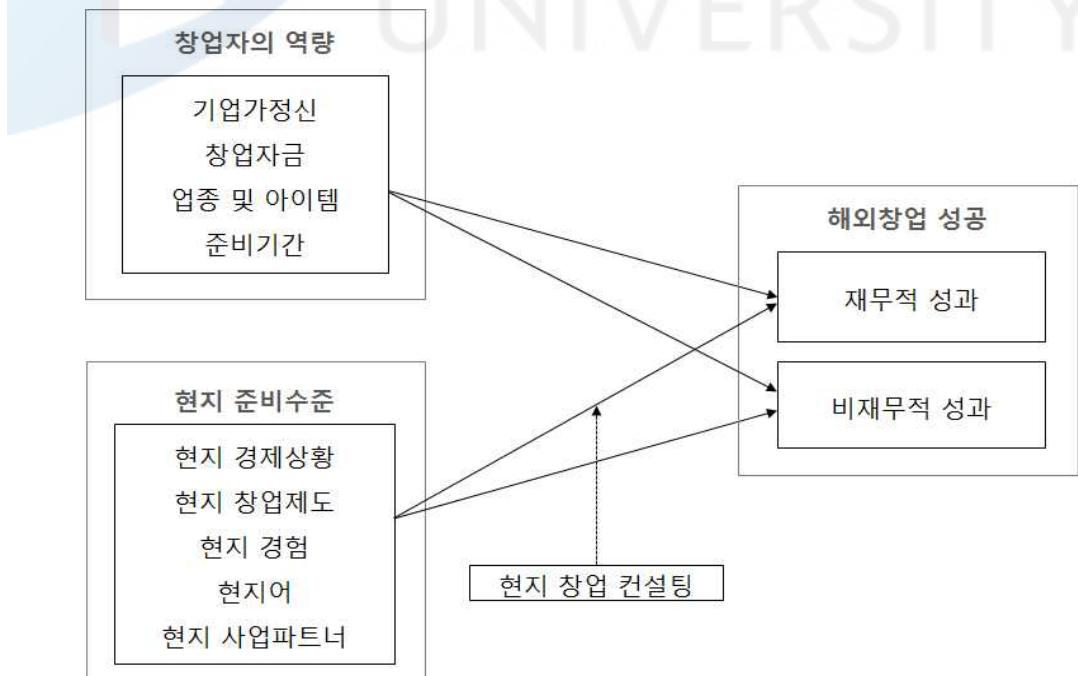
## 제 3 장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1) 연구모형

본 논문은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로 해외창업의 성공의 핵심요소인 창업자의 역량과 현지 준비수준 중 어떤 요인이 해외 창업의 성공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창업이 아닌 아세안 국가 중심의 해외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량 중 기업가 정신, 창업자금, 업종 및 아이템, 준비기간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경제상황, 현지 창업 제도, 현지 경험, 현지 사업 파트너와 현지 창업 컨설팅이 해외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3-1] 연구모형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위의 [그림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2) 연구 가설의 설정

연구 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검토결과에 따라 창업성공요인들을 토대로 해외창업 성공에 대한 원인변수들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설(작업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 창업자의 역량

역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언뜻 생각해 보면 능력이나 역량이나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 둘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능력은 “개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역량이란 “어떤 일을 잘 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한다.

#### (1)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연구의 선구자 슘페터는 기업가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미래에 도전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가”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가치창조(value creation)”인 것이다. 반면에 재력가는 이미 존재하던 경제적인 가치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가치획득에 초점을 맞춘다. 재력가는 자신의 부는 늘리지만 이로 인해 사회전체 부가 증가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조하려는 기업가 정신이 가득한 사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창조적인 파괴와 혁신을 통해 쉽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창업자의 역량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은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창업자금

창업초기는 창업자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초기이다 보니 자금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된 꿈과 노력을 펼치기 전에 접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창업자의 역량에서는 창업자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창업자의 창업자금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업자의 창업자금은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업종 및 아이템

해외창업에서의 아이템 선정은 실제 현지에서 창업성공의 가장 큰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외는 국내와 달리 현지인들의 유망품목이나 선호 아이템이 달라 창업국가 환경에 맞는 업종과 아이템을 선정하여 창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창업자의 역량에서는 업종 및 아이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창업자의 업종 및 아이템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창업자의 업종 및 아이템은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준비기간

전국 1만 490개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물어보니 창업 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이 50.1%였다. 또한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을 갖고 창업을 했을 경

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창업자의 역량에서는 창업 준비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창업자의 준비기간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창업자의 준비기간은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현지 준비수준

해외창업에 있어서 현지 준비수준은 국내창업과보다 매우 비중이 크다. 국내에서의 창업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창업을 하려면 국내에서의 준비기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 (1) 현지 경제상황

해외창업 시 현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창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현지 정권에 따른 경제상황이 외국인들에 대한 창업에 많은 변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경제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현지 경제상황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현지 경제상황은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현지 창업제도

현지 창업제도는 해외 창업 시 업종 및 품목에 따라 외국인이 창업이 불가한 품목도 있고 현지인과 외국인과의 투자비율도 다르므로 현지 창업제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외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창업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1. 현지 창업제도는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현지 창업제도는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현지 경험

현지에서의 경험은 해외 창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며 실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현지에서의 아무 경험없이 창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경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1. 현지 경험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2. 현지 경험은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현지어

현지어의 사용 유무는 현지 창업 및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영어 만으로의 의사소통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창업 성공요인 중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어 사용유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1. 현지어 사용유무는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2. 현지어 사용유무는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현지 사업 파트너

해외창업 시 외국인 투자만으로는 창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많다. 특히 소상공인의 창업 업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지인의 투자비율이 높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사업 파트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1. 현지 사업 파트너 유무는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2. 현지 사업 파트너 유무는 해외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 현지 창업 컨설팅

해외창업 시 현지의 정확한 창업 정보를 알기 위하여 현지 창업 컨설턴트로부터 창업 컨설팅을 받고 창업준비를 하는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따라서 해외창업의 성공요인 중 현지 준비수준에서는 현지 창업 컨설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0-1. 현지 창업 컨설팅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 2 절 자료조사 및 분석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의 현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창업 성공요인에서 창업자의 역량과 현지 준비수준에 따른 창업 성공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해외 창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182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 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창업자의 역량과 현지 준비수준 및 현지 창업 컨설팅 등의 문항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측정척도		문항수
창업자의 역량	기업가 정신 창업자금 업종 및 아이템 준비기간	15
현지 준비수준	현지 경제상황 현지 창업제도 현지 경험 현지어 현지 사업파트너 현지 창업 컨설팅	18
해외창업 성공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4 4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타당성,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해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는 변수의 판별타당성과 변수 간 관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해외창업 성공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해외 창업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해외창업 성공자를 대상으로 메일 및 현장 설문 응답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하는 응답자들에게는 설문에 대한 응답요령 및 체크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공지 하였으며, 순수하게 연구논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인적자료 등 인적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수집한다는 공지를 안내하였고, 설문에 대하여 경험하였거나 가장 근접한 번호를 선택하도록 한 후 설문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총 145부를 배포 하였으나, 132부가 답변을 하였으며, 답변된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 응답과 불성실한 26부를 제외하여 총 11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제 2 절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 빈도분석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9	58.0
	여	50	42.0
창업국가	베트남	21	17.6
	인도네시아	47	39.4

	미얀마	35	29.4
	캄보디아	16	13.5
연령	30대 미만	19	16.0
	30대 이상 ~ 40대 미만	23	19.3
	40대 이상 ~ 50대 미만	35	29.4
	50대 이상 ~ 60대 미만	38	31.9
	60대 이상	4	3.4
업종	제조업	21	17.6
	도소매업	31	26.0
	서비스업	38	31.9
	음식업	29	24.5
창업년수	1년 미만	7	6.0
	1년 이상 ~ 3년 미만	23	19.3
	3년 이상 ~ 5년 미만	41	34.4
	5년 이상 ~ 10년 미만	36	30.3
	10년 이상	12	10

설문에 응답한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69명(58%), 여자가 50명(42%)를 차지하였다. 창업국가로는 베트남 21명(17.6%), 인도네시아 47명(39.4%), 미얀마 35명(29.4%), 캄보디아 16명(13.5%)이며 연령별로는 30대 미만 12(10.1%), 30대 이상 ~ 40대 미만 29명(24.3%), 40대 이상 ~ 50대 미만 35명(29.4%), 50대 이상 ~ 60대 미만 38명(32%), 60대 이상 5명(4.2%)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1명(17.6%), 도소매업이 31명(26.0%), 서비스업이 38명(31.9%), 음식업이 29명(24.5%)을 차지하였다. 창업년수를 보면 1년 미만 7명(6%), 1년 이상 ~ 3년 미만 23명(19.3%), 3년 이상 ~ 5년 미만 41명(34.4%), 5년 이상 ~ 10년 미만 36명(30.3%), 10년 이상 12명(10%)를 차지하였다.

### 제 3 절 타당성과 신뢰성

#### 1) 타당성

측정데이터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요인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공통성, 요인적재량 및 고유값을 활용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에서 공통성이란 측정된 요인들 중에서 동일한 요인끼리 동일하게 묶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율로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0.4 이상이면 높다고 판단하여 요인분석 시 활용하고, 0.4이하일 경우에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한다. 요인적재량은 변수들의 중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일 때에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고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이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보고 통계분석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이 1.0을 초과하는 요인만을 선택하여 통계에 활용한다.(이일현, 2016)

본 연구에서는 총 44개 문항 중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3개 항목, 종속변수 항목 8개 항목, 조절변수 3개 항목을 제외하고 창업자의 역량에 대한 공통변수 15개 항목과 현지 준비수준에 대한 공통변수 15개 항목 등 30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자의 역량 및 현지 준비수준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19명의 데이터에서 결과 값을 얻었으며, 측정결과 119명의 데이터에서는 결측 값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측정변수들의 공변량은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2]는 A1부터 I3까지의 상관행렬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인분석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공통의 요인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어떠한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알 수 있고, A2를 살펴보면 A3와 상관계수가 0.6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1과 B2의 경우도 0.432로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B2가 B1과 0.766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공통요인들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자 한다.

〈표 4-2〉 측정변수들 간의 공변량

	A1	A2	A3	B1	B2	B4	B5	C1	C2	C3	C4	D1	D2	D3	E1	E2	E3	F1	F2	F3	G1	G2	G3	H1	H2	H3	I1	I2	I3	B3
2 관 련 계 수	.000																													
A1	.477	1,000																												
A2	.660	.519	1,000																											
A3	.398	.365	.430	1,000																										
B1	.84	.399	.266	.262	.612	.803	1,000																							
B2	.82	.482	.319	.380	.756	.1,000																								
B3	.84	.399	.266	.262	.612	.803	.1,000																							
B5	.85	.346	.247	.298	.649	.808	.655	1,000																						
C1	.262	.257	.451	.455	.482	.382	.437	.1,000																						
C2	.371	.362	.437	.445	.448	.415	.448	.561	1,000																					
C3	.288	.283	.349	.442	.483	.408	.393	.602	.700	1,000																				
C4	.325	.277	.394	.460	.494	.382	.407	.611	.692	.666	1,000																			
D1	.294	.226	.295	.418	.392	.305	.406	.306	.256	.313	.311	1,000																		
D2	.205	.179	.190	.484	.399	.336	.389	.412	.355	.346	.328	.735	1,000																	
D3	.107	.189	.133	.456	.314	.266	.359	.412	.369	.390	.404	.640	.770	1,000																
E1	.078	.127	.055	.073	.153	.094	.078	.098	.056	.091	.035	.006	.028	.157	1,000															
E2	.098	.105	.034	.082	.179	.111	.097	.162	.075	.109	.089	.084	.156	.126	.746	1,000														
E3	.092	.030	.050	.046	.074	.063	.078	.055	.020	.003	.012	.031	.054	.036	.534	.684	1,000													
F1	-.088	-.046	-.144	-.020	-.026	.032	-.087	-.083	-.057	-.028	-.065	-.122	-.033	-.121	.024	.046	.108	.1000												
F2	-.094	-.037	-.164	-.163	-.115	-.066	-.215	-.187	-.141	-.115	-.121	-.187	-.106	-.166	-.065	.018	.114	.684	1,000											
F3	-.105	-.060	-.062	-.057	-.122	.187	.057	.018	.130	.098	-.091	-.148	-.183	-.092	.052	.059	.351	.271	1,000											
G1	.092	.012	-.001	.142	.199	.262	.192	.116	.030	.092	.088	.005	.032	.084	.136	.138	.181	.001	.061	.045	1,000									
G2	.047	.001	-.025	.113	.178	.180	.138	.151	.016	.065	.117	.058	.030	.132	.067	.121	.066	-.007	.056	.041	.766	1,000								
G3	.035	.022	-.013	.116	.165	.190	.124	.166	.096	.155	.171	.022	.013	.074	.086	.087	.092	.002	.054	.061	.870	.793	1,000							
H1	-.162	-.204	-.172	-.090	-.107	-.077	-.095	-.015	-.213	-.197	-.221	-.024	.067	.142	.122	.038	.058	.080	.073	-.204	.078	.148	.048	1,000						
H2	-.122	-.143	-.034	-.152	-.139	-.111	-.150	-.080	-.131	-.128	-.068	-.087	-.080	-.169	-.060	-.019	.063	.126	.049	.016	.008	.407	1,000							
H3	-.033	-.148	.018	-.118	-.117	-.059	-.173	-.083	-.131	-.110	-.091	-.072	-.165	-.051	-.052	.011	.114	.036	.036	.013	.060	.349	.516	1,000						
I1	-.097	.064	-.046	.032	.104	.040	.056	.103	.025	.066	.062	-.052	-.045	.081	.121	.079	-.010	-.110	-.140	.068	.232	.246	.210	.153	.062	-.077	1,000			
I2	.074	.100	.047	.122	.201	.167	.159	.174	.101	.145	.175	.029	.100	.133	.178	.116	-.154	-.100	.084	.184	.157	.184	.039	-.075	-.085	.626	1,000			
I3	.042	.112	.032	.162	.082	.202	.098	.206	.219	.062	.137	.203	.068	.023	.020	-.075	-.093	-.020	.311	.403	.368	.083	-.021	.049	.616	.679	1,000			
I4	.303	.237	.342	.291	.322	.389	.319	.207	.286	.296	.315	.195	.182	.095	-.102	-.114	-.048	.033	-.066	.070	.155	.115	.199	-.170	-.156	-.056	-.009	.125	.121	1,000

KMO Bartlett(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설정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KMO 값은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하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0.75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191.837
자유도	435
유의확률	.000

각 변수들 초기값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공통성 추출 값을 살펴보면 .735, .633, .783, .688, .865, .876, .879, .697, .717, .848, .849, .685, .851, .864, .774, .876, .682, .810, .804, .601, .884, .833, .909, .658, .720, .677, .779, .765, .775, .395로 나타나 최고 .909부터 .395로 나타나 공통성이 0.4 이하인 .395는 공통성이 낮아 변수를 요인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을 살펴보면 성분은 총 30개로 나타났으나 베리멕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초기 고유값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면 추출된 9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의 초기 고유값은 3.313, 3.216, 2.717, 2.639, 2.423, 2.393, 2.317, 1.949, 1.94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고, 1번 요인의 분산은 11.042%, 2번 요인의 분산은 10.719%, 3번 요인의 분산은 9.056%, 4번 요인의 분산은 8.796%, 5번 요인의 분산은 8.075%, 6번 요인의 분산은 7.975%, 7번 요인의 분산은 7.724%, 8번 요인의 분산은 6.498%, 9번 요인의 분산은 6.495%를 설명하고 있으며, 누적퍼센트는 76.380%로 전체에서 9개 요인이 76.380%만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표 4-4]에 나타났다.

[표 4-4] 설명된 총분산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7.134	23.779	23.779	7.134	23.779	23.779	3.313	11.042	11.042
2	3.325	11.082	34.861	3.325	11.082	34.861	3.216	10.719	21.761
3	2.337	7.791	42.652	2.337	7.791	42.652	2.717	9.056	30.816
4	2.136	7.119	49.770	2.136	7.119	49.770	2.639	8.796	39.612
5	1.978	6.593	56.364	1.978	6.593	56.364	2.423	8.075	47.687
6	1.685	5.617	61.980	1.685	5.617	61.980	2.393	7.975	55.662
7	1.660	5.532	67.512	1.660	5.532	67.512	2.317	7.724	63.387
8	1.405	4.682	72.195	1.405	4.682	72.195	1.949	6.498	69.885
9	1.256	4.186	76.380	1.256	4.186	76.380	1.949	6.495	76.380
10	.840	2.799	79.179						
11	.746	2.485	81.665						
12	.616	2.053	83.717						
13	.561	1.869	85.586						
14	.488	1.626	87.212						
15	.485	1.615	88.827						
16	.448	1.495	90.322						
17	.392	1.307	91.629						
18	.345	1.151	92.780						
19	.308	1.028	93.808						
20	.278	.926	94.734						
21	.251	.838	95.572						
22	.236	.786	96.358						
23	.219	.731	97.088						
24	.197	.656	97.744						
25	.162	.541	98.285						
26	.142	.472	98.758						
27	.112	.372	99.130						
28	.096	.320	99.450						
29	.088	.293	99.743						
30	.077	.257	100.00 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법을 체크한 결과 7번을 반복 계산 한 후에 얻어진 회전된 성분행렬을 살펴보면 총 30개의 변수는 B4, B5, B2, B1는 1번 요인, C3, C4, C2, C1는 2번 요인, G3, G1, G2는 3번 요인, D3, D2, D1는 4번 요인, E2, E1, E3는 5번 요인, A3, A1, A2, B3는 6번 요인, I1, I2, I3는 7번 요인, H2, H3, H1는 8번 요인, F1, F2, F3는 9번 요인으로 묶였으며, 설명된 총분산과 동일하게 9개의 요인으로 묶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된 총 분산과 동일하게 9개 요인으로 묶였으나, B3가 자못 적재된 것으로 잘못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B3는 창업자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기업가정신에 잘못 적재된 것이다. 이에 B3를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표4-5]에 나타났다.

[표 4-5]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4	5	6	7	8	9
B4	.886								
B5	.874								
B2	.827								
B1	.643								
C3		.863							
C4		.863							
C2		.754							
C1		.692							
G3			.936						
G1				.913					
G2				.890					
D3					.859				
D2						.854			
D1							.743		
E2								.914	
E1									.867
E3									.812
A3									.799
A1									.794
A2									.736

B3						.388			
I1						.865			
I2						.847			
I3						.810			
H2							.829		
H3							.806		
H1							.663		
F1								.886	
F2								.866	
F3								.55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a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변수 B3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Bartlett은 유의확률 0.000, KMO측도 0.748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공통성 부분에서도 .745, .657, .784, .697, .873, .873, .881, .695, .718, .848, .849, .684, .853, .864, .782, .872, .697, .808, .811, .603, .888, .839, .908, .665, .717, .680, .779, .765, .774로 나타나 최고 .908부터 .60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아 변수를 요인분석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을 살펴보면 성분은 총 30개로 나타났으나 베리멕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초기 고유 값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면 추출된 9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의 초기 고유 값은 3.246, 3.222, 2.693, 2.624, 2.387, 2.316, 2.238, 1.941, 1.94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고, 1번 요인의 분산은 11.194%, 2번 요인의 분산은 11.110%, 3번 요인의 분산은 9.285%, 4번 요인의 분산은 9.049%, 5번 요인의 분산은 8.231%, 6번 요인의 분산은 7.986%, 7번 요인의 분산은 7.718%, 8번 요인의 분산은 6.693%, 9번 요인의 분산은 6.692%를 설명하고 있으며, 누적 퍼센트는 77.958%로 전체에서 9개 요인이 77.958%만 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표 4-6]에 나타났다.

[표 4-6] 설명된 총분산(2차)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6.950	23.966	23.966	6.950	23.966	23.966	3.246	11.194	11.194
2	3.324	11.460	35.427	3.324	11.460	35.427	3.222	11.110	22.304
3	2.335	8.050	43.477	2.335	8.050	43.477	2.693	9.285	31.589
4	2.075	7.154	50.630	2.075	7.154	50.630	2.624	9.049	40.638
5	1.945	6.706	57.336	1.945	6.706	57.336	2.387	8.231	48.869
6	1.684	5.806	63.142	1.684	5.806	63.142	2.316	7.986	56.855
7	1.646	5.677	68.819	1.646	5.677	68.819	2.238	7.718	64.574
8	1.401	4.833	73.652	1.401	4.833	73.652	1.941	6.693	71.267
9	1.249	4.306	77.958	1.249	4.306	77.958	1.941	6.692	77.958
10	.815	2.811	80.769						
11	.616	2.124	82.893						
12	.602	2.074	84.968						
13	.488	1.684	86.652						
14	.486	1.674	88.327						
15	.452	1.559	89.886						
16	.395	1.363	91.249						
17	.345	1.191	92.440						
18	.309	1.064	93.504						
19	.290	.999	94.503						
20	.253	.872	95.375						
21	.237	.819	96.194						
22	.219	.756	96.950						
23	.202	.697	97.647						
24	.163	.561	98.208						
25	.142	.490	98.698						
26	.112	.385	99.083						
27	.099	.341	99.424						
28	.088	.304	99.728						
29	.079	.272	100.00 0						
30	.077	.257	100.00 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2차 회전된 성분행렬을 살펴보면 설명된 총분산과 동일하게 9개의 요인으로 묶여 있고 공통성 또한 0.6 이상으로 잘 묶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4-7]에 나타났다.

[표 4-7] 회전된 성분행렬(2차)

	성분									공통성
	1	2	3	4	5	6	7	8	9	
B4	.885									.873
B5	.876									.881
B2	.832									.873
B1	.651									.697
C4		.866								.849
C3		.866								.848
C2		.757								.718
C1		.692								.695
G3			.935							.908
G1			.916							.888
G2			.894							.839
D3				.859						.864
D2				.855						.853
D1				.743						.684
E2					.911					.872
E1					.871					.782
E3					.823					.697
I1						.865				.779
I2						.847				.765
I3						.810				.774
A1							.796			.745
A3							.795			.784
A2							.750			.657
F1								.884		.808
F2								.870		.811
F3								.549		.603
H2									.827	.717
H3									.809	.680
H1									.667	.665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a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B3항목을 제거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구성요인을 추출 하였으며,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여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기준으로 고유 값이 1.0 이상인 값을 선택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총 30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29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표4-8]에 나타났다.

[표 4-8] 분석 활용 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창업자의 역량	기업가정 신	A1	.796	.745		
		A3	.795	.784	2.238	7.718
		A2	.750	.657		
	창업자금	B4	.885	.873		
		B5	.876	.881	3.246	11.194
		B2	.832	.873		
		B1	.651	.697		
	업종 및 아이템	C4	.866	.849		
		C3	.866	.848	3.222	11.110
		C2	.757	.718		
		C1	.692	.695		
	준비기간	D3	.859	.864		
		D2	.855	.853	2.624	9.049
		D1	.743	.684		
	현지 경제상황	E2	.911	.872		
		E1	.871	.782	2.387	8.231
		E3	.823	.697		
현지 준비 수준	현지 창업제도	F1	.884	.808		
		F2	.870	.811	1.941	6.693
		F3	.549	.603		
	현지경험	G3	.935	.908		
		G1	.916	.888	2.693	9.285
		G2	.894	.839		
	현지어	H2	.827	.717		
		H3	.809	.680	1.941	6.692
		H1	.667	.665		
	현지 사업파트너	I1	.865	.779		
		I2	.847	.765	2.316	7.986
		I3	.810	.774		

## 2)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도구로 측정한 결과, 동일한 요인에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잔여변수들을 가지고 가설검정을 실행한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의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정확성(accurac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는 개념이다(채서일, 2000)<sup>1)</sup>. 또한 신뢰성은 이론적으로는 전체 분산에 대하여 참 분산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서 신뢰성 측정방법으로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반분법(split-half method), 그리고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검증방법 등이 있다. 특히나 내적 일관성 검증방법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에 본 조사를 위해 사전에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이용되기도 하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보통 내적일관성 검증방법으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계수를 이용하는데,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0.6 정도면 충분하다(Nunnally, 1978)<sup>2)</sup>.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0.6 이상이 되면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채서일, 2000).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로 수집된 설문지의 개별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신뢰성의 의미는 어떠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사 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를 통하여 단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19개 측정 항목들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표4-9]와 같이 기업가정신

1) 채서일 (2000),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 Nunnally, J. C. (1978), Psychological Theory, 2nd ed., McGraw Hill.

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88로 나타났고, 창업자금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922로 나타났고, 업종 및 아이템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91로 나타났고, 준비기간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78로 나타났고, 현지 경제 상황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50으로 나타났고, 현지 창업제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08로 나타났고, 현지경험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927로 나타났고, 현지어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689로 나타났고, 현지 사업파트너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29로 나타났으며, 모두 0.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적정한 수준이상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해서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표 4-9]에 나타났다.

[표4-9] 신뢰성 분석 결과- 항목총계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Cronbach의 알파
창 업 자 의 역 량	A1	7.27	3.232	.655	.683	.788
	A2	7.09	4.000	.546	.794	
	A3	7.35	3.400	.691	.643	
	B1	11.96	6.617	.717	.933	
	B2	12.09	5.491	.881	.878	.922
	B4	12.20	5.417	.842	.892	
	B5	12.25	5.258	.859	.886	
	C1	8.87	9.348	.654	.902	
	C2	8.66	9.753	.736	.868	.891
	C3	9.11	8.895	.831	.832	
	C4	8.93	8.775	.831	.831	
	D1	6.91	3.508	.734	.865	
	D2	6.71	3.548	.828	.770	.878
	D3	7.19	4.242	.754	.846	
	E1	7.08	3.789	.703	.810	
	E2	7.08	2.857	.814	.694	.850
	E3	7.21	3.625	.659	.846	
현 지 준 비 수 준	F1	4.70	1.145	.669	.418	.708
	F2	4.54	1.471	.622	.493	
	F3	4.68	2.185	.342	.806	
	G1	6.25	7.987	.864	.885	.927
	G2	6.18	8.418	.806	.931	
	G3	6.51	7.947	.885	.867	
	H1	8.02	2.525	.435	.680	.689
	H2	8.31	1.775	.567	.510	
	H3	8.16	1.966	.527	.566	
	I1	7.52	4.506	.690	.763	.829
	I2	7.61	3.968	.693	.762	
	I3	7.29	4.426	.685	.766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총 29개 항목을 통계분석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종합하면 다음 [표4-10]과 같다.

[표4-10]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신뢰도	
	1	2	3	4	5	6	7	8	9	공통성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 ach 알파	Cronba ch의 알파
B4	.885									.873	.892	
B5	.876									.881	.886	
B2	.832									.873	.933	.922
B1	.651									.697	.922	
C4		.866								.849	.831	
C3		.866								.848	.832	
C2		.757								.718	.868	.891
C1		.692								.695	.902	
G3			.935							.908	.867	
G1			.916							.888	.885	
G2			.894							.839	.931	.927
D3				.859						.864	.846	
D2				.855						.853	.770	.878
D1				.743						.684	.865	
E2					.911					.872	.694	
E1					.871					.782	.810	.850
E3					.823					.697	.846	
I1						.865				.779	.763	
I2						.847				.765	.762	
I3						.810				.774	.766	.829
A1							.796			.745	.683	
A3							.795			.784	.643	
A2							.750			.657	.794	.788
F1								.884		.808	.418	
F2								.870		.811	.493	
F3								.549		.603	.806	.708
H2									.827	.717	.510	
H3									.809	.680	.566	
H1									.667	.665	.680	.689
Eigen Value	3.24 6	3.22 2	2.69 3	2.62 4	2.38 7	2.31 6	2.23 8	1.94 1	1.94 1			
분 산 설 명	11.1 94	11.1 10	9.28 5	9.04 9	8.23 1	7.98 6	7.71 8	6.69 3	6.69 2			

## 제 4 절 통계분석

### 1) 창업자의 역량 - 재무적 성과(H1)

창업자의 역량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해서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1] 창업자의 역량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02 <sup>a</sup>	.041	.033	.91494

창업자의 역량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202$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41$ 로 나타나 독립변수 창업자의 역량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3.3%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4.993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27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12], [표4-13]에 나타냈다.

[표 4-12] 창업자의 역량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4.180	1	4.180	4.993	.027 <sup>b</sup>
	잔차	97.943	117	.837		
	전체	102.123	118			

[표 4-13] 창업자의 역량 - 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772	.084		44.766 .000
	mH1	-.285	.128	-.202	-2.235 .027

$t$ 값이  $-2.235$ 로  $\pm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27$ 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창업자의 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의 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_1$ 은 채택되었다.

### 가) 기업가 정신 - 재무적 성과( $H_{11}$ )

기업가 정신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해서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4]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4] 기업가 정신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47 <sup>a</sup>	.200	.193	.83560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447$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200$ 로 나타나 독립변수 기업가 정신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19.3% 비율을 나타냈다.

$F$ 값은 29.259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15], [표4-16]에 나타냈다.

[표 4-15] 기업가 정신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20.430	1	20.430	29.259	.000 <sup>b</sup>
	잔차	81.693	117	.698		
	전체	102.123	118			

[표 4-16] 기업가 정신 – 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072	.320		6.466 .000
	mA	.465	.086	.447 5.409	.000

t값이 5.409로 ±1.96보다 크며, 유의확률은 .00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기업가 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 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11은 채택되었다.

#### 나) 창업자금 – 재무적 성과(H12)

창업자금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진행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7] 창업자금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713 <sup>a</sup>	.508	.504	.65501

창업자금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713$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508$ 로 나타나 독립변수 기업가 정신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5.5%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121.029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18], [표4-19]에 나타냈다.

[표 4-18] 창업자금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51.926	1	51.926	121.029	.000 <sup>b</sup>
	잔차	50.197	117	.429		
	전체	102.123	118			

[표 4-19] 창업자금 - 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40	.316		1.077 .284
	mB	.845	.077	.713	11.001 .000

t값이 11.001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창업자금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금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12는 채택되었다.

#### 다) 업종 및 아이템 - 재무적 성과(H13)

업종 및 아이템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해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0]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0] 업종 및 아이템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514 <sup>a</sup>	.264	.258	.80138

업종 및 아이템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514$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264$ 로 나타나 독립변수 업종 및 아이템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80.1%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42.020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21], [표4-22]에 나타냈다.

[표 4-21] 업종 및 아이템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26.985	1	26.985	42.020	.000 <sup>b</sup>
	잔차	75.138	117	.642		
	전체	102.123	118			

[표 4-22] 업종 및 아이템 – 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326	.232		10.018
	mC	.482	.074	.514	6.482

t값이 6.482로  $\pm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업종 및 아이템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종 및 아이템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13은 채택되었다.

#### 라) 준비기간 – 재무적 성과(H14)

준비기간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순회귀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3] 준비기간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657 <sup>a</sup>	.431	.427	.70445

준비기간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는  $R = .657$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431$ 로 나타나 독립변수 준비기간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70.4%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88.787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24], [표4-25]에 나타냈다.

[표 4-24] 준비기간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44.061	1	44.061	88.787	.000 <sup>b</sup>
	잔차	58.062	117	.496		
	전체	102.123	118			

[표 4-25] 준비기간 – 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1.505	.247	6.086	.000
	mD	.649	.069	.657	9.423

$t$ 값이 9.423으로  $\pm 1.96$ 보다 크며, 유의확률은 .00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즉 준비기간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비기간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14는 채택되었다.

## 2) 창업자의 역량 – 비재무적 성과(H2)

창업자의 역량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진행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6]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6] 창업자의 역량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59 <sup>a</sup>	.003	-.005	.65873

창업자의 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059$ 로 나타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3$ 로 나타나 독립변수 창업자의 역량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5.9% 비율을 나타냈다.

$F$ 값은 .405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526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27], [표4-28]에 나타냈다.

[표 4-27] 창업자의 역량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176	1	.176	.405
	잔차	50.769	117	.434	
	전체	50.944	118		

[표 4-28] 창업자의 역량 – 비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706	.316		11.725
	mD	.056	.088	.059	.636

t값이 .636으로  $\pm 1.96$ 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526로  $p > 0.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창업자의 역량이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의 역량이 비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2는 채택되었다.

#### 가) 기업가 정신 – 비재무적 성과

기업가 정신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9]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9] 기업가 정신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78 <sup>a</sup>	.006	-.002	.93142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078$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6$ 로 나타나 독립변수 기업가 정신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93.1%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715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399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30], [표4-31]에 나타냈다.

[표 4-30] 기업가 정신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621	1	.621	.715	.399 <sup>b</sup>
	잔차	101.502	117	.868		
	전체	102.123	118			

[표 4-31] 기업가 정신 – 비재무적 성과 계수(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465	.353		.000
	mE	.081	.096	.078	.846

t값이 .846으로  $\pm 1.96$ 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399로  $p > 0.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기업가 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 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미치지 않아 H21은 기각되었다.

#### 나) 창업자금 – 비재무적 성과(H22)

창업자금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2]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2] 창업자금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99 <sup>a</sup>	.040	.031	.91557

창업자금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199$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40$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창업자금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91.5%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4.826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3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33], [표4-34]에 나타냈다.

[표 4-33] 창업자금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4.045	1	4.045	4.826	.030 <sup>b</sup>
	잔차	98.078	117	.838		
	전체	102.123	118			

[표 4-34] 창업자금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4.48 1	.341	13.129	.000
	mF	-.31 3	.143	-.199	-2.197

t값이 -2.197으로  $\pm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3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창업자금이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금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22는 채택되었다.

#### 다) 업종 및 아이템 – 비재무적 성과(H23)

업종 및 아이템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5]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5] 업종 및 아이템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69 <sup>a</sup>	.028	.020	.92085

업종 및 아이템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169$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28$ 로 나타나 독립변수 업종 및 아이템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92.1%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3.43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66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36], [표4-37]에 나타냈다.

[표 4-36] 업종 및 아이템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2.910	1	2.910	3.432	.066 <sup>b</sup>
	잔차	99.213	117	.848		
	전체	102.123	118			

[표 4-37] 업종 및 아이템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4.708	.522	9.027	.000
	mG	-.234	.126	-.169	-1.853

$t$ 값이  $-1.853$ 으로  $\pm 1.96$ 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066$ 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업종 및 아이템이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종 및 아이템이 비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23은 기각되었다.

#### 라) 준비기간 - 비재무적 성과(H24)

준비기간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8]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8] 창업자금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69 <sup>a</sup>	.028	.020	.92085

준비기간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169$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28$ 로 나타나 독립변수 준비기간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92.1%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3.43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66으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39], [표4-40]에 나타냈다.

[표 4-39] 준비기간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2.910	1	2.910	3.432
	잔차	99.213	117	.848	
	전체	102.123	118		

[표 4-40] 준비기간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4.708	.522		9.027 .000
	mH	-.234	.126	-.169 -1.853	.066

t값이 -1.853으로 ±1.96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066로  $p > 0.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준비기간이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비기간이 비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24는 기각되었다.

### 3) 현지 준비수준 – 재무적 성과(H3)

현지 준비수준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41]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99 <sup>a</sup>	.040	.031	.91557

현지 준비수준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199$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40$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준비수준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91.5%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4.826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3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42], [표4-43]에 나타냈다.

[표 4-42]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4.045	1	4.045	4.826	.030 <sup>b</sup>
	잔차	98.078	117	.838		
	전체	102.123	118			

[표 4-43]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4.481	.341		13.129 .000
	mF	-.313	.143	-.199	-2.197 .030

t값이 -2.197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3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 준비수준이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준비수준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3은 채택되었다.

### 가) 현지 경제상황 - 재무적 성과(H31)

현지 경제상황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44] 현지 경제상황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39 <sup>a</sup>	.057	.049	.90714

현지 경제상황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239$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57$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경제상황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90.7%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7.101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9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45], [표4-46]에 나타냈다.

[표 4-45] 현지 경제상황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5.843	1	5.843	7.101	.009 <sup>b</sup>
	잔차	96.280	117	.823		
	전체	102.123	118			

[표 4-46] 현지 경제상황 – 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919	.324	8.997	.000
	mI	.224	.084	.239	2.665

t값이 2.665으로  $\pm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9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 경제상황이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경제상황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31은 채택되었다.

#### 나) 현지 창업제도 – 재무적 성과(H32)

현지 창업제도를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4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47] 현지 창업제도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98 <sup>a</sup>	.158	.151	.85713

현지 창업제도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398$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158$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창업제도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85.7%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22.006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48], [표4-49]에 나타냈다.

[표 4-48] 현지 창업제도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16.167	1	16.167	22.006	.000 <sup>b</sup>
	잔차	85.956	117	.735		
	전체	102.123	118			

[표 4-49] 현지 창업제도 - 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2.587	.261	9.916	.000
	mA	.325	.069	.398	4.691

$t$ 값이 4.691로  $\pm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 창업제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창업제도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32는 채택되었다.

#### 다) 현지 경험 - 재무적 성과(H33)

현지 경험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0]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0] 현지 경험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29 <sup>a</sup>	.108	.101	.88214

현지 경험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329$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108$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경험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88.2% 비율을 나타냈다.

$F$ 값은 14.233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51], [표4-52]에 나타냈다.

[표 4-51] 현지 경험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11.076	1	11.076	14.233	.000 <sup>b</sup>
	잔차	91.047	117	.778		
	전체	102.123	118			

[표 4-52] 현지 경험 - 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608	.314		8.292 .000
	mB	.305	.081	.329 3.773	.000

t값이 3.773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 경험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경험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33은 채택되었다.

#### 라) 현지어 - 재무적 성과(H34)

현지어를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3] 현지어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31 <sup>a</sup>	.001	-.008	.65954

현지어와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031$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1$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어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5.9%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115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735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54], [표4-55]에 나타냈다.

[표 4-54] 현지어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050	1	.050	.115	.735 <sup>b</sup>
	잔차	50.894	117	.435		
	전체	50.944	118			

[표 4-55] 현지어 – 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965	.191		20.746	.000
	mC	-.02 1	.061	-.031	-.339	.735

t값이 -.339으로  $\pm 1.96$ 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735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현지어가 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어가 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34는 기각되었다.

#### 마) 현지 사업파트너 – 재무적 성과(H35)

현지 사업파트너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6]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6] 현지 사업파트너 – 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94 <sup>a</sup>	.156	.148	.85853

현지 사업파트너와 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394$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156$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사업파트너에 의해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85.9%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21.55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57], [표4-58]에 나타냈다.

[표 4-57] 현지 사업파트너 – 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15.885	1	15.885	21.552	.000 <sup>b</sup>
	잔차	86.237	117	.737		
	전체	102.123	118			

[표 4-58] 현지 사업파트너 – 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2.537	.274		9.272	.000
	mD	.347	.075	.394	4.642	.000

t값이 .443으로  $\pm 1.96$ 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658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현지 사업파트너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사업파트너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35는 채택되었다.

#### 4)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H4)

현지 준비수준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2]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9]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61 <sup>a</sup>	.004	-.005	.65865

현지 준비수준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061$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4$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준비수준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5.8%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43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512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60], [표4-61]에 나타냈다.

[표 4-60]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188	1	.188	.432	.512 <sup>b</sup>
	잔차	50.757	117	.434		
	전체	50.944	118			

[표 4-61] 현지 준비수준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744	.250	15.004	.000
	mE	.045	.068	.657	.512

$t$ 값이 .657으로  $\pm 1.96$ 보다 낮고, 유의확률은 .512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현지 준비수준이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준비수준이 비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4는 기각되었다.

#### 가) 현지 경제상황 – 비재무적 성과(H41)

현지 경제상황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62]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2] 현지 경제상황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46 <sup>a</sup>	.021	.013	.65279

현지 경제상황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146$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21$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경제상황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5.3%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2.548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113으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63], [표4-64]에 나타냈다.

[표 4-63] 현지 경제상황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1.086	1	1.086	2.548
	잔차	49.858	117	.426	
	전체	50.944	118		

[표 4-64] 현지 경제상황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280	.243		17.587
	mF	-.162	.102	-.146	-1.596

t값이 -1.596으로 ±1.96보다 작고, 유의확률은 .113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현지 경제상황이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경제상황이 비재무적 성과에 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41은 기각되었다.

#### 나) 현지 창업제도 – 비재무적 성과(H42)

현지 창업제도를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65]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5] 현지 창업제도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016 <sup>a</sup>	.000	-.008	.65978

현지 창업제도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016$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0$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창업제도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5.9%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029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865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표4-66], [표4-67]에 나타냈다.

[표 4-66] 현지 창업제도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013	1	.013	.029	.865 <sup>b</sup>
	잔차	50.932	117	.435		
	전체	50.944	118			

[표 4-67] 현지 창업제도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84 0	.374		10.277	.000
	mG	.015	.090	.016	.171	.865

t값이 .171으로  $\pm 1.96$ 보다 낮고, 유의확률은 .865로  $p > 0.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 창업제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창업제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42는 기각되었다.

#### 다)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H43)

현지 경험을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68]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8]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621 <sup>a</sup>	.386	.381	.73192

현지 경험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621$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386$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경험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73.2%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73.631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69], [표4-70]에 나타냈다.

[표 4-69]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39.445	1	39.445	73.631	.000 <sup>b</sup>
	잔차	62.678	117	.536		
	전체	102.123	118			

[표 4-70]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442	.392	1.130	.261
	mH	.787	.092	.621	8.581

t값이 .171으로  $\pm 1.96$ 보다 낮고, 유의확률은 .865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현지 경험이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경험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43은 채택되었다.

#### 라)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H44)

현지어를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7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71]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80 <sup>a</sup>	.078	.070	.63352

현지어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280$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78$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어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3.3%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9.93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2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72], [표4-73]에 나타냈다.

[표 4-72]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3.986	1	3.986	9.932	.002 <sup>b</sup>
	잔차	46.958	117	.401		
	전체	50.944	118			

[표 4-73]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213	.227	14.183
	mI	.185	.059	.280

t값이 3.151으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2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어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어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44는 채택되었다.

#### 마)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H45)

현지 사업파트너를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74]과 같이 나타났다.

[표 4-74]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단순회귀분석결과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80 <sup>a</sup>	.078	.070	.63352

현지 사업파트너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R = .280$ 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078$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현지 사업파트너에 의해 종속변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63.3% 비율을 나타냈다.

F값은 9.93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2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표4-75], [표4-76]에 나타냈다.

[표 4-75]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3.986	1	3.986	9.932
	잔차	46.958	117	.401	
	전체	50.944	118		

[표 4-76]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213	.227		14.183	.000
	mI	.185	.059	.280	3.151	.002

t값이 3.151으로  $\pm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2로  $p < .05$ 이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현지 사업파트너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 사업파트너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H45는 채택되었다.

##### 5) 현지 준비수준 - 재무적 성과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 분석(H5)

현지 준비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현지 창업 컨설팅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표 4-77]과 [표 4-78]로 나타났다.

[표 4 - 77]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 도1	자유 도2	유의확률 F 변화량
1	.130a	.017	.009	.65426	.017	2.014	1	117	.158
2	.481b	.231	.218	.58105	.214	32.340	1	116	.000
3	.488c	.238	.218	.58107	.007	.991	1	115	.322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결정계수 증가분  $\Delta R^2 = .007$ 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p=.322 > .05$ ) 현지 창업컨설팅은 현지 준비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다.

[표 4 - 78]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164	.524		6.034	.000
	mH2	.208	.146	.130	1.419	.158
2	(상수)	2.747	.471		5.827	.000
	mH2	-.067	.139	-.042	-.482	.631
3	mJ	.392	.069	.494	5.687	.000
	(상수)	2.748	.471		5.829	.000
	mH2	-.075	.139	-.047	-.541	.590
	mJ	.398	.069	.502	5.756	.000
	mmH1mm J	.081	.082	.081	.996	.322

[표 4 - 79] 현지 준비수준 조절효과 검정

	Step 1		Step 2		Step 3	
	B	$\beta$	B	$\beta$	B	$\beta$
상 수	3.164		2.747		2.748	
현지 준비수준	.208	.130** *	-.067	-.042*	-.075	-.047*
현지 창업컨설 팅			.392	.494** *	.398	.502** *
H2 * m					.081	.081**
R2	.017		.231		.238	
$\Delta R2$			.214***		.007	

현지 준비수준이 해외창업 성공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지 창업 컨설팅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현지 준비수준

(B=.208, p=.322 >.05)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차이가 없고 현지 준비수준을 설명하는 설명도는 1.7%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현지창업컨설팅이 추가되어 2.14%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001) 전체 설명력은 2.31%이다. 현지 창업 컨설팅이 증가할수록(B=.392)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창업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검정하는 3단계에서는 결정계수가 .007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현지 창업 컨설팅은 현지 준비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지 창업 컨설팅은 현지 준비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지 않는다.

현지 창업 컨설팅은 3단계에서 설명력이 2.14%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현지 준비수준이 높을수록(B=.392) 재무적 성과가 높아졌다. 즉 현지 창업 컨설팅을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다.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현지 창업 컨설팅은 조절효과가 없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므로 현지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현지 준비수준 하위 5개 항 – 재무적 성과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 분석(H51~H55)

현지 경제상황, 현지 창업제도, 현지 경험, 현지어, 현지 사업파트너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현지 창업 컨설팅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표 4-80]과 [표 4-81]로 나타났다.

[표 4 - 80]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 도1	자유 도2	유의확률 F 변화량
1	.357a	.127	.120	.56746	.127	17.051	1	117	.000
2	.524b	.275	.262	.51946	.148	23.620	1	116	.000
3	.536c	.288	.269	.51703	.013	3.608	1	115	.005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결정계수 증가분  $\Delta R^2 = .013$ 이 유의함으로 ( $p=.005 < .05$ ) 현지 경제상황, 현지 창업제도, 현지 경험, 현지어, 현지 사업파트너는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 현지창업컨설팅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81] 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1	(상수)	3.754	.082		45.949 .000
	mmE	.071	.093	.068 .759	.450
	mmF	.339	.050	.527 6.714	.000
	mmG	.340	.044	.529 7.638	.000
	mmH	-.208	.123	-.151 -1.699	.092
	mmI	.296	.051	.405 5.782	.000
2	(상수)	3.754	.082		45.795 .000
	mmE	.068	.094	.066 .731	.466
	mmF	.493	.055	.641 9.024	.000
	mmG	.446	.053	.579 8.451	.000
	mmH	-.209	.123	-.151 -1.701	.092
	mmI	.230	.052	.378 4.421	.000
	mmJ	.292	.062	.399 4.679	.000
3	(상수)	3.799	.102		37.335 .000
	mmE	.062	.103	.060 .605	.546
	mmF	.210	.049	.344 4.319	.000
	mmG	.274	.058	.375 4.721	.000
	mmH	-.229	.148	-.145 -1.547	.125
	mmI	.230	.052	.378 4.421	.000
	mmJ	.241	.058	.357 4.129	.000
	mmEmmJ	-.102	.141	-.075 -.721	.472
	mmFmmJ	.219	.053	.325 4.102	.000
	mmGmmJ	.278	.058	.380 4.820	.000
	mmHmmJ	-.087	.060	-.114 -1.447	.151
	mmImmJ	.226	.054	.334 4.216	.000

[표 4 - 82] 현지 준비수준 조절효과 검정

	Step 1	Step 2	Step 3-1	Step 3-2	Step 3-3	Step 3-4	Step 3-5
상 수	3.754 ***	3.754 ***	3.799 ***	3.754 ***	3.719 ***	3.752 ***	3.808 ***
현지 경제상황	.071	.068	-.10 2				
현지 창업제도	.339* **	.493* **	.210* **	.219* **			
현지 경험	.340* **	.446* **	.274* **		.278* **		
현지어	-.20 8	-.20 9	-.22 9			-.08 7	
현지 사업파트너	.296* **	.230* **	.230* **				.226* **
현지 창업컨설팅		.292	.241	.195	.259	.250	.052
H*m			.062	.008	.118	-.10 2	.249
R <sup>2</sup>	.121	.123	.048	.070	.060	.099	.067
ΔR <sup>2</sup>		.002	.010	.001	.022	.035	.008

현지 준비수준이 해외창업 성공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지 창업 컨설팅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현지 준비수준 ( $B=.071$ ,  $p=.000$ )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준비수준을 설명하는 설명도는 1.21%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현지창업컨설팅( $B=.064$ ,  $p=.000$ )이 추가되어 .002%가 증가하였고, 현지창업컨설팅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창업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검정하는 3단계에서는 결정계수가 현지 경제상황은  $-.102$ , 현지 창업제도는  $.219^{***}$ , 현지 경험은  $.278^{***}$ , 현지어는  $-.087$ , 현지 사업파트너는  $.226^{***}$ 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472, .000, .000, .151 .000로 나타나, 현지 창업 컨설팅은 현지 경제상황 및 현지어는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지 창업제도, 현지 경험, 현지 사업파트너는 유의하게 나타나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통계분석 결과

[표 4 - 83] 통계분석 결과

No	가설			결과
H1	H11	창업자의 역량	기업가 정신 - 재무적 성과	채택
	H12		창업자금 - 재무적 성과	채택
	H13		업종 및 아이템 - 재무적 성과	채택
	H14		준비기간 - 재무적 성과	채택
H2	H21	창업자의 역량	기업가 정신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22		창업자금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23		업종 및 아이템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24		준비기간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3	H31	현지 준비수준	현지 경제상황 - 재무적 성과	채택
	H32		현지 창업제도 - 재무적 성과	채택
	H33		현지 경험 - 재무적 성과	채택
	H34		현지어 - 재무적 성과	기각
	H35		현지 사업파트너 - 재무적 성과	채택
H4	H41	현지 준비수준	현지 경제상황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42		현지 창업제도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43		현지 경험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44		현지어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45		현지 사업파트너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5	H51	현지 창업컨설팅 (조절효과)	현지 경제상황 - 재무적 성과	기각
	H52		현지 창업제도 - 재무적 성과	채택
	H53		현지 경험 - 재무적 성과	채택
	H54		현지어 - 재무적 성과	기각
	H55		현지 사업파트너 - 재무적 성과	채택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소상공인의 창업이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해외창업은 국내에서 하는 창업보다 훨씬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룰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해외창업 결과를 가져올 창업자의 역량과 현지 준비수준에 대한 결정요인들과 그 영향들을 추정함으로써 해외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역량 중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는 채택이 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기각되었다.

둘째, 창업자의 역량 중 창업자금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자의 역량 중 창업자의 업종 및 아이템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는 채택이 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기각되었다.

넷째, 창업자의 역량 중 창업자의 준비기간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는 채택이 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경제상황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는 채택이 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기각되었다.

여섯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창업제도는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

적 성과는 채택이 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기각되었다.

일곱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경험은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 채택이 되었다.

여덟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어는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는 기각되고 비재무적 성과는 채택이 되었다.

아홉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사업파트너는 해외창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 채택이 되었다.

열번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경제상황의 재무적 성과의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기각되었다.

열한번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창업제도는 재무적 성과의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채택이 되었다.

열두번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경험은 재무적 성과의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채택이 되었다.

열세번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어는 재무적 성과의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기각 되었다.

열네번째, 현지 준비수준 중 현지 사업파트는 재무적 성과의 현지창업컨설팅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분석결과는 채택이 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자의 역량(기업가 정신, 창업자금, 업종 및 아이템, 준비기간)은 재무적 성과 즉 월 매출액이나 순이익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비재무적 성과 사업기간, 사업 만족도등에는 창업자금외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지준비 수준(경제상황, 창업제도, 경험, 현지어, 사업파트너)에서 는 재무적 성과에서는 현지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값으로 채택 되었 으며 비 재무적 성과에서는 경제상황과 창업제도는 유의하지 않으며 나머 지는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 창업컨설팅의 효과는 창업제도 와 경험, 사업파트너는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으며 국내 창업과는 달리 해외창업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으며 창업자금과 현지 경험, 현지 사업파트너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어 충분한 준비를 통 한 해외창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해외 창업자들이 조금 더 유념하여 해외창업에 임한다면 조금이라도 해외창업 성 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표 5-1]과 같이 해외창업자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해외 창업의 성공 가능성 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거라 판단한다.

[표 5 - 1] 해외 창업자의 조언

항목	내용
개인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 언어를 학습하고 현지 지원 도움 없이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li></ul>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소한 1년 현지에 거주하면서 시장조사 필요, 신중하고 철저한 시장 조사 필요</li></ul>
운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세안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현재 임대료가 매우 비쌈</li><li>· 모든 관리 분야에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li><li>· 단일 사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작은 사업 여러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li></ul>
현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인 고객 확보 노력하기 위한 현지인 기호에 맞는 제품/서비스 제공</li><li>· 현지 소비 트렌드 반영, 현지 산업 구조와 연계</li><li>· 현지 지역 사회 일원으로 역할 수행, 지역 현지인 커뮤니티 적극 참여</li><li>· 이윤의 일정부분 지역 사회에 환원,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이미지 제고</li></ul>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서비스, 매장 관리 등에 대한 직원 교육 필요</li> <li>· 높은 이직률 감안, 다양한 인센티브 성과제도 도입</li> <li>· 창업자 당사자가 현지어에 능통할수록 인사관리가 쉽다.</li> </ul>
창업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제도를 충실히 인지하고 법적 테두리에서 융통성을 발휘, 돈으로 승부하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li> <li>· 인적 네트워크 구축 중요함(한인 커뮤니티 공동 홍보)사업 파트너의 중요성(현지인과 창업/경영에 대한 업무 분담 및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li> <li>· 자신의 전문 분야로 시작할 것, 인내심을 갖고 현지 절차에 적용 필요</li> <li>· 현지의 정치,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한국보다 더 노력</li> <li>· 한국식의 태도, 서비스,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현지화</li> </ul>
초기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어야하며 자본이 적은 회사는 체류 비자 받기가 아주 어려움</li> <li>· 임대료가 비싸고 1년마다 재임대 계약으로 인테리어에 투자하기 어려움</li> </ul>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소자본 해외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에서 창업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지만 소상공인들의 창업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국가별, 업종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대상을 해외창업자 중 아세안국가 중심(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의 해외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이는 각 국가별 창업자의 특성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후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실질적 성공모델로 발굴할 수 있는 “소상공인 해외 창업 성공사례”를 연구하려고 한다.

## 참 고 문 헌

- 권영남. (2010). “소상공인 창업의 성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경률. (2010). “창업컨설팅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진경. (2011). “소상공인 창업자의 창업성공요인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진. (2011). “소상공인 창업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병오. (2011).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자. (2012).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미. (2013).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루리. (2014). “글로벌 역량과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호. (2014).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숙. (2015). “중소기업 CEO의 역량이 기업의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인규. (2015).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경험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주철. (2016).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욱. (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교육성과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부 록(설문지)

본 설문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사적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인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해외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이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답변은 저의 논문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고 귀찮으시더라도 선생님의 답변 하나하나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Tel

- ◎ 본 설문의 작성에는 약 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평소에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거나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V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다음은 창업자의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대해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실패 위험이 두려워서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금이 창업의 성공을 좌우 한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적절한 자금으로 창업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리한 자금조달을 통해 창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창업자금규모는 아이템선정과의 관련이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8. 창업자금 규모가 창업성공에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창업성공을 위한 업종경력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템 선정이 창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과거의 직업이나 경험이 있는 분야의 업종 및 아이템을 선정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아이템은 창업국가의 유망 아이템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창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창업 준비 시 충분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준비했다.	①	②	③	④	⑤

B. 다음은 현지 준비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현지 경제상황이 창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지 경제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지 경제상황에 맞춰 창업시기를 조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창업하려는 국가의 창업제도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창업하려는 품목에 대한 현지 법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창업하려는 업종이 창업제도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지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현지에 체류한 경험이 창업 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현지경험을 하며 창업을 하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창업하려는 국가의 언어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창업하려는 국가의 언어를 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창업국가 언어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창업 전 현지 창업 파트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주변에 나를 도와줄 현지 파트너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지 창업을 위해서 현지 사업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현지 컨설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해외 창업 시 현지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공 창업을 위해 현지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상권 및 입지선정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D. 다음은 재무적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해외 창업 시 현지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공 창업을 위해 현지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상권 및 입지선정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 다음은 비재무적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회사의 고객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F.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창업국가는?

①베트남 ②인도네시아 ③미얀마 ④캄보디아

3. 귀하의 연령대는?

①30대 미만 ②30대 이상 40대 미만 ③40대 이상 50대 미만 ④50대 이상 60대 미만 ⑤60대 이상

4. 귀하의 창업 업종은?

①제조업 ②도소매업 ③서비스업 ④음식업

5. 귀하는 창업하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 3년 미만 ③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이상 10년 미만 ⑤10년 이상

## ABSTRACT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overseas startup  
business for small enterprise  
- Focus on ASEAN countries-

Lee, Dong-Hyun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w breakthroughs of Korean businessmen who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establish Korean businessmen, And how it affects the success of overseas start-ups.

Entrepreneurship competence is derived from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industry, items and preparation period. The hypothesis is proved by dividing into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t the local preparatory level, we derived hypothesis of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by deriving from local economic situation, local start-up system, local experience, local language and local business part. In addition, the financial effect of the local preparatory level of local start-up consulting was verified by the adjustment effec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the founder's competence (entrepreneurial spirit, entrepreneurial fund, industry type, item, preparation perio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overseas entrepreneurship but not in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Local preparation levels (economic conditions, start-up systems, experience, local language, business partners)



*Keywords:* Overseas business, Small business start-up, Southeast Asia start